







# **2013 11** 1966년창간

에세이 어느 90세 건축사의 독도기행 감상문 공간의 크기, 생각의 크기 묵향이 감도는 추사고택

특 집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금호억유화학



#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www.kkpc.com

#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 건축주의 교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 소음 진동 보온 단열 내진 성능 우수
-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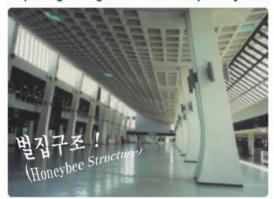
#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 기존 건물 ]

[SLAF 건물]

#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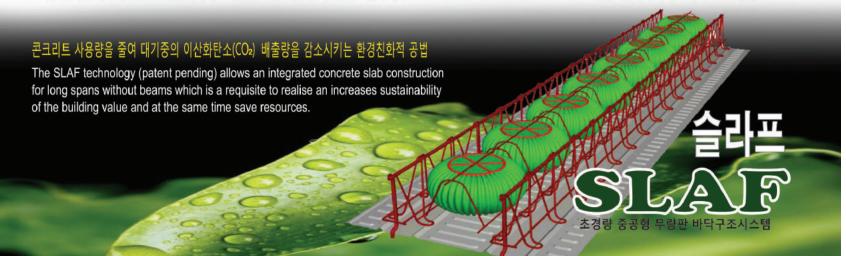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mark>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세움터 인증</mark> 포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なる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 서울사무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02)333-4448 ■공장: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054)973-1900



ISO 9001/2000 인증제품

# UNGW00 safedoor

# 신제품



# 레스 단열바 프레임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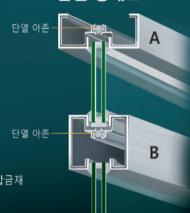
#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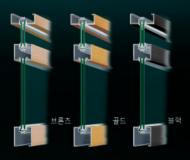
•스텐 •골드 •브론즈 •헤어라인 •밀러 •갈바 불소코팅

# 단면 상세도



#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단열 아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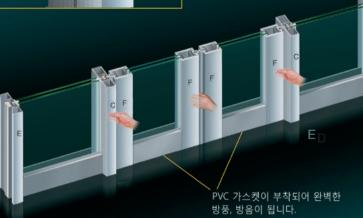
## ▶ 가격표: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단면 상세도





C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꾸) 정 우 안 업

본 사: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053)325-9800/325-9801~2 FAX: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전국 영업망 구축



D



www.safedoor.co.kr



#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브라더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양면이쇄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속모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대비: 최대 흑백 20pm, 컬러 18pm		
복사 속도	흑배 t2pm, 컬러 9pm		
맥스 모뎀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a(광략), 19,200x19,200da(확진)		



MFC-J2510 InkBenefit

ii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네번째 구매)

(다섯번째 구매)

(세번째 구매)



# 강봉 포스트텐션보강

# ▶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 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 이다.





# ▶ 보강공법의 특징

#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www.sypanel.com

#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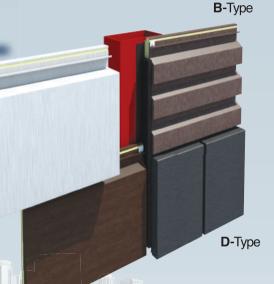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는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A**-Type

- PIR
- · GLASSWOOL
- ROCKWOOL

C-Typ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용 패널

#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설계영업부(기술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301호 TEL. 02) 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 FREE-METAL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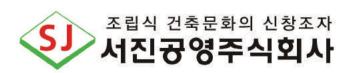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하는 생활공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수준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및 품질관리로 세계 1등 품질의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을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 하십시요.

KG 🔷 東洋실리 N 株式會社











**ੁੱ**ਪੀ2ਂ 3∼5℃

<sup>겨울철</sup> 실내온도 **3∼5℃** ↑











ADDEROSE WWW.ipalg.CO.Kr 이파엘지.kr



#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시스템출입구매트.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Fax: 02-784-2011

# **KOREAN ARCHITECTS**

# 건축사

# www.KIRA.or.kr 2013 November

# **COVER STORY**



표지사진: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분 대상 및 본상 수상작 자세한 내용은 본지 28페이지 특집 참조

**. 행 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장영호, 백상월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mark>인 터 넷</mark> www.kira.or.kr

**ロ 자 인 · 인 쇄** 화신문화(주) 02\_2277\_0624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017** 편집인 칼럼 COLUMN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019** 에세이 ESSAY

어느 90세 건축사의 독도기행 감상문 Travel Essay of a 90 Years Old Architect

공간의 크기, 생각의 크기

Size of space is not equal to size of thinking গুৰুষ

묵향이 감도는 추사고택

The Chusa's Old House Where Incense of Ink in The Air

**024** 空間共感 CONGENIAL SPACE

한정훈

**025** 만평 CARTOON

김진균

**026** 특집화보 SPECIAL PICTORIAL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개막 행사 화보 Korean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3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Jang, Yeong-ho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I-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철산 '건숙사,는 안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형 및 실선묘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ntents535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11월호

### 028 특집 SPECIAL ISSUE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특집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3

# **056** 회원작품 WORKS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PRUGIO WORLDMARK, JAMSIL 변희협 KIRA | ㈜시몽 건축사사무소

#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GOYANG-SAMSONG SEWAGE TREATMENT CENTER 임준빈 KIRA |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

서남물재생센타공원 관리사무소 SOUTHWEST WATER RESTORATION CENTER PARK MANAGEMENT OFFICE

### **070** 설계경기 COMPETITION

\_김석환\_KIRA | 터 · 울 건축사사무소

세종소방서 SEJONG FIRE STATION

# **074** 연애편지를 읽다-다섯번째이야기 READING LOVE LETTER

내세에는 우리 부부 바꿔서 태어나리

We, our couple, will do switch the position in the hereafter

# **077** 책 속을 거닐다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 고민하는 당신에게 How am I ready to be get older? - for you who has the question

\_정이숙

### **078**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Advantage of a Rescissory Action for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_성승환

# **080** 연재 I SERIAL I / 통일 후 한국건축을 전망한다 ②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구성

The Organization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_민경태

# **085**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과의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 어느 90세 건축사의 독도기행 감상문

Travel Essay of a 90 Years Old Architect



**김승환** | Kim, Seung-hwan, KIRA (주)문화종합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우리의 땅 독도를 90평생에 한번 가볼 마음으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아침 7시 30분에 강릉으로 출발하는 첫 차에 올랐다.

강릉에는 10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는데, 울릉도로 출발하는 배는 이미 9시 30분에 출발했다는 것이다. 강릉에서 울릉도로의 출항은 매일 한 번씩이라고 한다. 암담한 마음에 해운터미널 직원에게 "독도를 가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혼자가시려고요?"하며 되묻는다. "응, 혼자!"라고 대답하자 직원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니 늦지 않도록 오시라고 하고는 친절하게도 울릉도에서의 식사, 관광, 숙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줬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는 강릉에서 쉬면서 좀 전에 말했던 직원의 말을 상기하면서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

9월 11일, 아침 배편에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배에 올라 독도로 출발했다. 과거 같으면 8시간 이상 걸렸을 배가 이제는 2시간 남짓하니 울릉항에 도착했다. 이어 독도까지는 1시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독도에 도착하니 젊은 경찰들이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상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선상에서는 독도에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TV로 독도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보았지만, 독도에 대한 노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물론, 울릉도 동남쪽…이라는 노래는 있지만 부르는 사람도, 나오는 노래도 없었다.)

"왜? 그럴까?" 과거 이주 오랜 옛날부터 동요와 시 그리고 노랫가락은 무한의 소유를 나타내는 증표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의 독도를 사랑하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독도사랑애창 등과 같은 노래가 한 없이 흘러나오고 국민 모두가 부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래는 남, 북한이 모두 공통 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과거 2002년에 월드컵 응원을 할 때에 함께 박수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와 같은 한마음, 한 국가라는 일체감이 있는 노래와 외침이 선상에서부터 주변 모두에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상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못해 개탄스 럽다. 위안부할머니를 대하는 일본의 행동을 보았는가? 현재 이 젊은이들의 엄마나 누나가, 언니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초를 겪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과거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고 식민지를 경험했다. 그러나 과거의 행태에 명쾌하게 잘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하는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반면에 일본은 언어뿐 아니라 민족 문화 자체를 말살하였으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남의 땅에 대해서 국제재판소에 제기하겠다는 등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 90살이 넘은 노인은 머지않아 세상에서 잊히겠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아야 한다. E.H카의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말했듯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강릉시 씨스포빌 여객선 터미널 박 계장님의 친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

필자는 1923년 평양에서 출생, 한 양대학교 건축학과를 52년도에 졸업했다. 건국대 산업대학원을 이수했고, 군속 설계관, (주)경남기업, 수원농촌진흥청 근무를 거쳐 65년에 (주)문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한국카톨릭 군종 사제관과 천주교방성교회, 안양 포일 및 군포성당, 의정부 경민대학 등이 있다.

# 공간의 크기, 생각의 크기

Size of space is not equal to size of thinking



**안희곤** | Ahn, Hee-gon 사월의책 출판사 대표

몇 년 전 청도 운문사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다. 비구니절로 유명한 운문사이지만 객방이열 칸쯤 있어서 가끔은 남자손님도 재워준다. 스님들의 거소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니호기심은 접자. 그곳에 오래 묵고 있던 저자를 만나러 갔던 건데, 저자는 앉은뱅이책상과 조그만 반닫이 하나에 소지품 등속을 넣어두고는 조촐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아아, 아무런 장식과 기물도 없이 텅 빈 그 방은 얼마나 고졸한지! 그 겨울밤 우리는 둘이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에서 창호 두 짝을 통해 쏟아지는 별을 보며 밤새 인간과 자연과 세상살이를 이야기했다. 그 뒤로 절에 들를 때마다 나는 대웅전이나 극락전 같은 웅장한 공간보다는 '요사채'라 불리는 숭방을 기웃거리곤 한다. 대개는 나 같은 잡인들이 얼씬 못하게 닫혀 있지만 텅 빈 수도의 공간을 훔쳐보는 건 남모를 즐거움이다. 무릇 깨달음이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 '홀로코스트 타워'라는 공간이 있다.(그 공간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차디찬 시멘트벽에 아무런 조명도 없이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는 공간은 방형(方形)이 아닌 날카로운 예각으로 모서리를 만들어 놓아서 공간에 들어선 사람을 몸서리치게 만든다. 나는 소란스런 단체관광객이 방을 떠나기를 한참이나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 공간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날카롭게 이어진 천정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이 전부인 공간은 참혹했고, 나는 마치 실존의 극한을 마주한 듯한 경험을 맛보았다. 공간이란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너비를 가졌다는 점 외에는 볼 수 있는 것도, 만질 수 있는 것도 없다. 홀로코스트 타워 역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인간의 모든 아우성과 경험의 극단과 죽음이 날 것으로 다가오는 곳이기도 했다.

화려한 대웅전보다는 담백 조촐한 승방을 더 좋아한다고 했지만, 나는 같은 이유로 절보다는 서원이 더 좋다. 무소유를 말하는 사찰이 우습게도 금칠한 부처님과 화려한 기물들로 사람들의 복락을 빌어주는 데 몰두하고 있는 반면, 서원은 유교의 오래된 청빈의 사상을 구현하듯이 결벽하고 단정한 공간들 외에는 일체의 허식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한옥이라 해도 운현궁의 노안당 같은 공간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대원군은 그곳의 값비싼 금침에 도사리고 앉아 늙은 권력욕을 불태웠을 것이다.

서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동에 꼭 가볼 일이다. 나는 이번 여름 안동에 갔다가 전에는 놓쳤던 경험을 몇 가지 얻고 돌아왔다. 유명한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보다는 퇴계 선생의 자취들만을 따라가 본 덕분이다. 퇴계 선생은 50세 되던 해에 풍기군수를 사직하고 안동의 한미한 냇가로 물러나(退溪의 호는 이렇게 유래했다) 계상서당을 연다. 말 그대로 '냇가 위에' 지은 서당으로 두 칸의 코딱지만 한 공간이다. 여기서 유성룡, 김성일 등 20여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니 선생의 앎은 공간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다. 젊은 율곡은 오래도록 흠모하던 퇴계를 만나러 계상서당에 찾아와 시를 바친다. 계상서당이 아무리 비좁은 초옥일지언정 그곳은 공자와 주자의 학문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칭송이었다.

溪分洙泗派 시냇물은 수사(洙泗)\*에서 갈라져 나왔고 峯秀武夷山 봉우리는 무이(武夷)\*처럼 드높도다

철학을 전공했고 내내 출판계에 몸 담고 일해 왔다. 고려원, 김영사 등 유명 출판사들에서 편집장을 거쳐 (주세종서적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사월의책'이라는 작은 출판 사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인문교양서, 예술서, 철학서들을 주로 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영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출판으로 입증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일보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오늘의 공간은 거대할수록 그리고 특이하고 복잡할수록 '창의적'이라 칭송받는다. 그것은 아마도 건축사들만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사회가 온통 그것을 바라니까.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인간의 본성에 알맞은 공간, 삶의 가능성과 생각을 키워주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홀로코스트 타워' 내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계상서당. 두 칸짜리의 초옥이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당. 대청은 암서헌(巖栖軒)이라는 당호가 따로 붙어있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小子求問道 제가 바라는 것은 도를 묻는 일이오니 非偷半日閑 반나절 헛되이 보낸다 생각지 마소서

우리는 도산서원의 규모와 풍광에 찬탄을 보내지만 서원의 정수는 사실 초입에 자리 잡은 도산서당에 있다. 도산서당은 계상서당이 비좁은 것을 안타까워한 제자들과 유림이 선생을 위해 지은 곳으로 세 칸의 초옥이다. 마루가 좁아 한 칸을 늘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선생은 서당을 새로 지은 후로 걸핏하면 건물이 너무 넓다넓다 불평을 했단다. 서당 맞은편에는 시습재(時習齋)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의 건물과 관란헌(觀瀾軒)이라는 건물을 붙여서 기숙사로 썼는데, 기숙사와 서당에서 100여 명의 제자들이 늘 배웠다니 공간의 쓰임이 놀랍다. 도산서당과 기숙사만이 퇴계가 허용했던 것이요, 위용을 자랑하는 나머지 서원 건물들은 후대에 지은 것이다. 안동은 점점 예법과 격식만을 좇는 공리공담의 중심지가 되어 간다.

너무 많은 소유와 너무 넓은 공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둔감하게 한다. 가난은 흔히들 결핍(lack)이나 희소성(scarcity)으로 이해하지만, 오히려 자족적 생활(subsistence)이나 가능성(potentiality)으로 보는 사상가들도 많다. 파리 파사주를 물신적 소비가 만개한 공간으로 명민하게 관찰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렇게 말한다. "경험 속의 가난이 빈자에게 무슨 작용을 하는가? 그것은 그로 하여금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조그만 시도를 공들여 하도록, 조금을 가지고 시작해 더 크게 키우도록 만든다."

재미있는 사실은 작은 공간, 좁은 건물일수록 바깥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된다는 점이다. 점유 공간이 작을수록 사람들은 더 넓은 바깥을 공유의 공간으로 누리고 싶어한다. 반 면에 궁궐과 저택과 빌라는 높다란 담장 안에 건물을 가두고 자연을 가두고 나아가 인 간 자신까지 가둔다. 퇴계의 서당은 바깥의 자연과 바로 이어져 있었다. 홀로코스트의 유대인은 아마도 좁디좁은 시멘트 안에 갇혀 있었을지언정 그의 영혼만큼은 새처럼 자유롭게 바깥을 날았을 것이다.

나는 건축사들이 크고 멋지고 독특한 건축에 대한 욕망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좁고 작은 건축물이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오늘의 공간은 거대할수록 그리고 특이하고 복잡할수록 '창의적'이라 칭송받는다. 그것은 아마도 건축사들만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사회가 온통 그것을 바라니까.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인간의 본성에 알맞은 공간, 삶의 가능성과 생각을 키워주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땅콩집' 같은 소부르주아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글쎄, 나라면 이렇게 질식할 것만 같은 고층아파트에서 풀려나와 절방처럼 작고 조촐한 공간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 상관없을 것 같다. 문제는 결단이 겠지만. 圖

<sup>\* &#</sup>x27;수(洙)'와 '사(泗)'는 공자가 살았던 곳의 강 이름들, '무이(武夷)'는 주자가 살았던 복건성의 산 이름.

# 묵향이 감도는 추사고택

The Chusa's Old House Where Incense of Ink in The Air



**김득수** | Kim, Deuk-su, KIRA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들뜬 마음도 달랠 겸해서 공해와 소음으로 찌들린 삭막한 도심 공간을 떠나 대자연의 품에 안겨봄도 괜찮을 것 같다. 싱그러운 바람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감미로운 철따라 가족나들이 장소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아주 적격, 멀리 나가지 않고도 따사로운 햇살과 잔디밭의 되살아나는 생명의 지순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온갖 고뇌와 답답할 때 무념무상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더욱 좋다. 고택의 한낮에는 마치 오랜 세월이 고여있는 듯 정적에 쌓여 있어 모처럼 침잠 속의 사색여행도 가능케 한다. 특히 이곳은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어 자녀들을 동반한 야외 나들이로는 으뜸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1786년 6월 3일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시대 문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신의 서체인 추사체와 고증학을 도입, 경학, 불교학, 금석학, 지리학, 천문학 등에도 박통한 것으로 유명하며 세한도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고택은 차령산맥이 머리를 북북서로 돌려 응봉의 팔봉산을 세우고 이 산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 신암면 용궁리에 단아한 삼각혈의 깔끔한 산을 이룬 용산자락에 80.5 평 규모로 세운 이른바 양반 대가집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집으로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月城尉 金漢蓋)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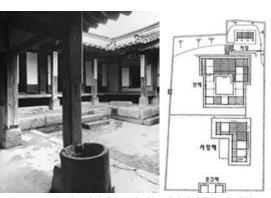
서쪽에 안채가 있고 한층 낮은 동쪽에는 사랑채가 있다. 안채는 6칸 대청과 2칸통의 안방과 건너방이 있으며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트인 곳이 없이 완벽한 'ㅁ'자형의 집이다. 안방과 건너방 밖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고 부엌 천정은 다락으로 되어있다. 안대청이 높고 안마당 크기가 작아 폐쇄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랑채는 소슬대문을 들어선 마당에 'ㄱ'자형의 남향집이다.

남쪽에 한 칸 동쪽에 2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대청과 마루로 되어 있다. 댓돌 앞에는 "석년(石年)"이라고 새겨져 있고 추사가 제작했다고 전하는 돌기둥이 있는데이 기둥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안채와 사랑채의 기단은 길게 다듬은 돌로 반듯하게 처리하고 사각의 주춧돌을 놓았다. 퇴보와 대들보가 같은 높이에 있고 지붕은 홑처마에 팔각지붕인데 사랑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대문쪽에서부터 대청과 사랑방 2칸이 이어지고 안채쪽으로 꺾인 부분에 두 칸 마루방과 온돌 1칸이 연결되어 있다. 방과 대청의 정면으로 반 칸의 툇마루가 연결되고 사랑방 끝에 반 칸을 내어 아궁이 함실을 두었다.

사랑채의 함실부분에는 지형의 경사가 심하여 맞배지붕으로 층을 지게 하였다. 가장 좋은 모임은 아내와 자식과 손주,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 야채, 생강(高會夫妻兒女孫, 大烹豆腐苽 薑菜) 고회부처아여손, 대팽두부고강채이란 글을 비롯 추사의 명필이 기둥마다 걸려있다.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에너지 관리공단 신도시 · 관광단지심의위원을 엮임한 바 있으며, 서울건축사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에너지설비분과위원장 역임. 서울건축사회복지회 신용협동조합이사, 감사,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을역임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

고택의 한낮에는 마치 오랜 세월이 고여있는 듯 정적에 쌓여 있어 모처럼 침잠 속의 사색여행도 가능케 한다. 특히 이곳은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어 자녀들을 동반한 야외 나들이로는 으뜸이다.



좌 : 안채내부공간, 우 : 김정희선생 고택 배치도





사랑채의 아궁이, 내부





좌 : 예산백송, 우 : 석주(石柱, 해시계, 石年)



예산 오서산 화암사

화순용주 정려문 지방문화재 43호의 추사선생의 예술적 활동을 가늠케 한다. 고옥 뜨락에 목련, 매화, 향내음과 묵향은 새삼 추사선생의 경이로움에 저절로 빠져들게 한다. 고택을 돌아나오면 넓직한 잔디밭 위에 추사선생의 묘소가 있고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화순용주와 월성위 김한신의 합장묘가 있고 그 옆으로 정조가 내린 열녀문이 있다. 조선 영조의 둘째딸로서 13세에 영의정 김흥경(金興慶)의 아들 월성위 김한신(月城尉 金漢蓋)과 결혼한 화순용주의 열녀정문(烈女旌門)이다.

추사 김정희 증조부이기도 한 김한신(1720~1758)은 벼슬이 수록대부 오위도총관 (綏綠大夫 五緯都總管)에 이르렀다. 부군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자 옹주는 식음을 전폐하고 영조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뒤를 따르자 영조는 옹주가 부왕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정문을 내리지 않았으나 후대에 정조가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약 200여평의 대지 위에 낮은 담장을 두르고 출입문의 정면에 홍문을 세웠다. 건물은 정면 8칸 측면 1칸으로 중앙의 오른쪽칸에 문을 내었고 문의 정면에 홍살을 세우고 문 위에는 붉은 칠을 한 현판이 걸려있다.

이 곳에서 옆으로 400m쯤 걸으면 천연기념물 106호인 「예산의 백송」이 200년의 기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우뚝 서 있다. 백송은 추사선생이 25세 때 청나라 연경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와 고조할아버지 김흥경의 묘 입구에 심은 것으로 요즘에 너무 오래된 탓인지 치료를 받고 있다.

오서산 중턱에 위치하고 백제 때 창건한 화암사의 년대는 미상이나 삼국시대의 고찰이라고 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이 조선 영조의 부마가 되었을 때 별사전(別賜田)으로 분급된 일대의 전토에 포함되어 그 일문에 세습되었다. 1752년(영조 28년) 월성위가 중건하였으나 그 후 대응전은 소실되고 요사체(療舍體)만 남아있다.

이 곳 오서산 화암사는 추사선생이 불교에 정심(情深)하였고 1846년(현종 12년) 제주도 적소(謫所)에서 문중에 서한을 보내어 중건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 곳에 추사 선생의 친필인 「무량수각(無量壽閣)」, 「시경루(詩境樓)」 등 편액이 있고 이 외에도 뒤편 오서산 암벽에는 친필을 새긴 암각문 내용은 좋은 경치라는 시경(詩境) 불교와 유교가 어우러진 집이라는 천축고선생댁(天竺古先生宅, 도지정 기념물 제151호) 등 석각 글씨가 선명하게 암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일대는 조선 후기의 사상가요 정치가이며 예술가였던 김정희 선생의 숨결이 가득차 있는 곳으로 추사 선생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圖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행사 개최 녹색건축한마당,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등 풍성

대한건축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건축전문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이하 KAFF 2013)'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을 주제로 성대히 개최됐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 Hall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한 마당'으로 녹색건축대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민참여형 그린리모델링,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이 함께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신인건축사 대상 작품전, 신진건축사 아이디어공모전, 대한건축사미술전,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

였으며, 건축사 실무교육과 녹색건축한마당 특별강연,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캐나다우드한 국사무소 등의 다양한 세미나도 개최됐다.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이화순 국토교통부 정책관과 서치호 대한건축학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장, 황수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장순영한국기술사회 부회장, 최학수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 등 외빈과 대







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이철호, 최영집, 강성익 고문과 권병조 부회장, 조형식 부회장, 김득수 감사, 조성원 한국건축산업대 전사업단장 및 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개막식 컷팅 후 내외빈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한 모든 업체들을 방문해 전시품목에 대해 자세히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우수건축자재 추천심사'를 실시했으며,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 추천하여 회원들에게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은 김 영석((주)영남유리산업) 대표와 강성현(서원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수상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상은 김영춘(영진철강(주)) 대표, 유학연 (한진테크(주)) 대표, 신현승((주)하나기공) 대표가 수상했다. 이어 환경부장관상은 이경희((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송유석((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복흠((주)이에이 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수상했고,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은 이회랑 (우정특수기업(주)) 대표와 한대근(케이티씨) 대표가 수상했다.











1		4	7
		5	8
2	3	6	

- 1. 개막식 테이프커팅
- 2. 개막식 전시개최 현황 설명
- 3. 전시장 입구
- 4. 전시장 전경
- 5. 건축사 실무교육
- 6. VIP 전시회 관람
- 7. 국토교통부 장관 전시회 관람
- 8. 녹색건축한마당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과 창작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1 2 3 4 5 6

1. 시상식 전경 2.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대회사

3. 승효상 심사위원장 심사 경과

4.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시상 5.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 치사

6. 전시회 개막 컷팅식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2013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이응노의 집(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문정동 보금자리 주택」설계자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태평양제약 헬스 케어사업장」, 「엠스엠원 하우스」설계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시공자와 건축주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올해에는 건축사의 설계 창의력은 물론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간 조정능력, 이를 협조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이해한 건축주의 패트론적 태도, 건축 개념에 대한 이해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시공자의 장인적 기술력,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땅이 지닌 역사적, 지형적 성격과 흔적을 재해석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절제된 형태와 공간을구현, 건축사가 전시 기획 및 설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형태와 공간, 화백의 작품과 예술혼을일체화하려고 한 점 등 규모는 작지만 제도적 한계와 지역 여건을 극복한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선례가 될 작품으로 평가 됐다.

이 밖에도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과거 대공분실 속의 역사적 아픔과 억압이 사회로 표출되게 하여, 2013년 우리가 잊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무엇을 기억해야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남영동 2013」의 유현미, 성은희, 박진효 씨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김창수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92점, 계획건축물부문 403점 등 총 495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10월 15일(화)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고, 수상작은 2층 로비에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시됐다. 圖



# 준공건축물부문

### □ 행사일정

- ▶ 작품공모공고 : 2013. 3. 4 ~ 6. 5
-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6. 7까지 ☞ kaa.kira.or.kr
- ▶ 접수 : 6. 10 ~ 6. 11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 ▶ 심사 : 1차 사진첩심사 : 6. 19 / 7. 1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7, 6 ~ 7, 10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7.10
- ▶ 시상식: 10. 15(14:00) / 장소: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 수상작 전시 : 10, 15 ~ 17 / 장소 : 건설회관 2층 로비

# □ 심사위원

승효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심사위원장

권연하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엔씨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이재림 (주)지담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재훈 단국대학교 교수

이한승 한양대학교 교수

심재호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 대상 수상작

-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 문정동 보금자리 주택

# 본상 수상작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태평양제약 헬스케어사업장
- 에스엠원 하우스

# 우수상 수상작

-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청사
- 노근리 평화기념관
-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 국립해양박물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서관
- 퇴촌면 근린생활시설
- 서울국제금융센터
-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사옥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리븐델
- 더사랑의교회
-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 아쿠아 플라넷 여수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
- 드래곤플라이 DMC타워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 혜초하우스
- SBS프리즘타워
- 바라움
- 라테라스 한남



#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La Maison de Lee Ungno, Hong sung

• 설계자-대통령상 :

조성룡\_(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덕청건설(주)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홍성군청** 



# 심사평

이응노의 집은 땅이 지닌 역사적, 지형적 성격과 흔적을 재해석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절제된 형태와 공간을 구현했다. 세장형의 주공간과 4개의 장방형 전시실, 그 사이의 전시 홀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전시실 사이의 창은 집 터의 근경, 들판의 중경, 그리고 멀리 용봉산의 원경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무채색에 가까운 다섯 가지 물성, 즉 콘크리트, 흙, 나무, 유리, 금속이 각각의 장방형 덩어리의 외피, 틈새, 지붕을 감싸고 있어 건물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게 한다. 잠열성능이 높은 흙벽을 외피로 쌓아올린 구축적 실험은 기술적인 결함과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주목할만하다. 또한 건축사가 전시 기획 및 설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형태와 공간, 화백의 작품과 예술혼을 일체화하려고 한 점은 출품된 다른 공공건축물과 차별화되었다.

현재 많은 공공건축물의 건립은 기획, 설계, 시공, 운영의 주체와 과정이 분리되어 예산에 걸맞은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응노의 집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제도적 한계와 지역 여건을 극복한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선례가 될 것이다.





#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Soongsil University Student Union

- 설계자-대통령상 : 강인철 (주)가아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쌍용건설(주)**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학)숭실대학교



# 심사평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은 정문과 캠퍼스의 중심부를 잇는 결절점이면서 운동장과 면하는 협소한 대지와 심한 경사지라는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다.

설계안은 방, 복도, 경사로로 구성된 단순한 공간조 직이 운동장을 'ㄱ'자로 길게 감싸면서 12미터의 단 차를 자연스럽게 잇고 있다. 각층의 방들은 외부와 직접 연결되어 건축물 전체가 캠퍼스의 관류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전체 형태는 주변 맥락에 드 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측면과 배면에 있는 인접 건 축물의 도입부처럼 인식된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형태와 공간의 역발상 전략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만남을 담는 새로운 캠퍼스건축 유형, 더 나아가 열린 도시건축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감한 시도와 실험을 수용한 대학 측의 태도와 협력, 꽉 짜인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낸 완성도 높은 시공 또한 주목을 받았다.





# 문정동 보금자리주택

Munjeong One-room Public Rental Housing

- 설계자-대통령상 : 최재원\_(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 주식회사 정림디자인빌드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 에스에이치공사



# 심사평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양분된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의 틈새를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이 메우고 있다. 최근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층 장기전세주택은 부족한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대체할 새로운 건축 유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품질 높은 중층 중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시대 이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정동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의 가장 보편적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좁고 긴 대지에 지상 5층 임대주택으로 설계되었다. 상부의 4개 층에는 편복도에 33세대를 위한 주거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열하면서도, 길과 마주하는 2층에는 세탁실을, 1층 안쪽

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외관은 내부공간과 단면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덩어리를 수평과 사선 방향으로 파내는 기법을 구사했다. 시공의 정밀도는 낮지만 저예산을 갖고 복잡한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도 일정 수준에 근접한 공공주택으 로 평가받았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 설계자-국무총리상 : **김진구**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대림산업(주)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 심사평

서울의 심장부 세종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 다는 점에서 이 건물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해외 자본과 기술력으로 지어졌던 옛 건물 을 새로운 박물관으로 바꾸는 재생 사업은 대규모 공공건축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 는 척도이기도 하다.

설계팀은 기존의 구조와 모듈을 살리면서 새로운 용도에 맞게 공간을 더하거나 빼는 공간구성 전략을 취했다. 수직 방향의 반투명 유리와 수평 방향의 금속 띠가 상부를 구 성하고. 석재가 하부를 감싸고 있는 이 건물은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정제되고 세련 된 외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계실을 가동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공간을 증축하는 시공의 어려움도 잘 풀어냈다. 건축사와 건설사의 소통과 협업이 쉽지 않은 일괄계약방식(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이 시공에 훌륭히 반영되었다. 다만 전시설계와 건축설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 태평양제약 헬스케어사업장

- 설계자-국무총리상 : **임재용**\_건축사사무소 O.C.A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주)포스코엔지니어링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주)태평양제약



# 심사평

공장건축은 집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가장 오 랜 시간 머무르는 중요한 일상공간임에도 불 구하고, 기능과 효용만이 필요한 건물로 간주 되어왔으며, 이런 진부하고 반복적인 공장건 물은 도시 주변의 산만한 풍경을 만들어왔다. 설계안은 제조장, 창고, 연구시설, 사무실 등 의 단위 공간이 밀집되어 폐쇄적 내부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존의 공장유형을 탈피했다. 격자형 구조 모듈을 따르면서도 1층에서는 주 복도를 건물의 외주부로 돌리면서 부분적으 로 중정에 면하게 하고, 관람용 복도를 내부 에 관입시킴으로써 두텁지만 열린 공간조직 을 만들어냈다. 2, 3층에서는 건물을 네 개의 장방형 육면체로 분절하고 다른 재료와 패턴 을 입혔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담백한 재 료, 정교한 마감을 결합한 태평양제약 헬스케 어사업장은 민간건축물이지만 근로자의 일터 인 공장건축의 수준을 끌어올린 우수한 선례 로 평가되었다.





# 에스엠원 하우스 SM'1 House

• 설계자-국무총리상 :

선은수\_㈜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박병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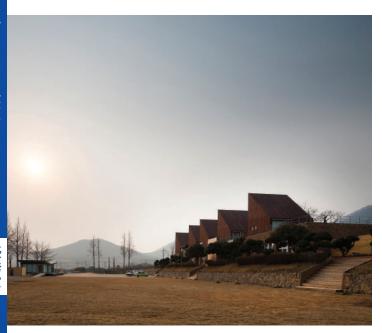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박병숙



# 심사평

제주시의 구도심과 신제주의 중 간에 자리한 이 주택은 동서축 의 복도를 따라 남북에 방을 붙 여 내외부 공간이 상호 관입하 는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다. 낮 게 쌓은 제주 돌담은 집안과 밖 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시각적 으로 개방되어 있다. 새로운 주 거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 지만 흰색 스터코와 유리와 단 정하게 마감한 외관은 주변의 풍경과 적절하게 공존하고 있 다. 정체성이 모호한 형태와 재 료로 덮인 주택들이 도시와 자 연의 중간지대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은 개성을 지니 면서도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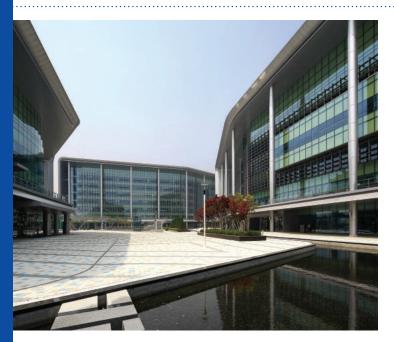
Slow Trip Center in Choengsan Island

• 설계자 : 김주경 (주)오우재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에코랜드건축주 : 완도군청

### 심사평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건축사의 열정과 노력으로 폐교된 중학교를 숙소, 체험관, 식당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탈바꿈한 여행학교이다. 느린 개념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충청남도 도본청 및 의회청사

Chungch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 Provincial Council

• 설계자 : 안길원\_(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계룡건설산업(주)** 

• 건축주 : **충청남도청** 

### 심사평

대칭과 중심을 강조하는 고층형 공공청사 유형을 탈피하여 청사를 저 층형 본관, 별관, 의회, 문예회관으로 분산하고 땅, 데크, 브리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내부는 여러 켜의 중복도를 결합한 새로운 공간조직을 구현했다.



# 노근리 평화 기념관

• 설계자 : 우의정\_(주)건축사사무소 엠아이씨

• 시공자 : **합자회사 한양종합건설** 

• 건축주 : **영동군 시설관리사업소** 

### 심사평

15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 노근리 사건의 현장 가까이에 세워 진 기념관은 경사로, 지하층의 홀, 전시공간, 쌍굴 다리를 은유화한 터널과 고통의 벽을 통해 관람객에게 묻힌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다.



#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Ecorium of the National Ecological Institute

• 설계자 : 박도권\_(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성물산(주)** 

• 건축주 : **환경부** 

### 심사평

절성토를 최소화한 대지 위에 열대관, 아열대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생태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다.



#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 설계자 : 김진구\_(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태영건설건축주 : 해양수산부

### 심사평

부산의 영도매립지 인공지반위에 건립된 해양박물관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바다를 최고의 전시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든 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서관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설계자 : 김진구\_(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계룡건설산업(주) 건축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심사평

저층부를 관통하는 보행로는 대학로의 흐름을 대지 안으로 유입하고 상부의 분절된 네 개의 덩어리는 주변의 스케일에 대응하고 있다. 대 학로에 면한 붉은 벽돌 입면과 이를 떠받치는 필로티 공간은 길의 연 속성을 훌륭히 살렸다.



# 퇴촌면 근린생활시설

Toechon-myeon Town

설계자 : 남기범\_공간환경 건축사사무소시공자 : 주식회사 성지우종합건설

• 건축주 : **김연순** 

### 심사평

계곡과 6미터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의 형상을 따라 마당을 만들고, 주변의 풍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식점, 사무실, 방갈로 등을 'ㄷ'자 로 배치하였다



# 서울국제금융센터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Seoul

• 설계자 : 김명홍\_(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지에스건설(주)** 

• 건축주 : 에스아이에프씨타워 원, 투, 쓰리, 리테일몰,

호텔 디벨로프먼트 유한회사

### 심사평

최고 55층의 3개동 오피스빌딩과 1개동의 특급 호텔, 지하의 대규모 쇼핑몰, 멀티플렉스, 엔터테인먼트센터로 구성된 서울국제금융센터 는 여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사옥 리모델링

# Stardom Entertainment Office Remodeling

• 설계자 : 김선현 디림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재진건설(주)** 

• 건축주 : **박주현** 

### 심사평

독산동 우시장 창고를 신산업으로 떠오른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변 신시켰다. 거친 콘크리트 질감을 그대로 살려 예산을 줄이면서도 새 로운 브랜드이미지를 창출한 현명한 설계안으로 평가했다.



# 더 사랑의 교회

The Sarang Church

• 설계자 : 최동규\_(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청오건설 주식회사** 

• 건축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지사랑의교회** 

### 심사평

40미터 도로에 면한 삼각형 대지 위에 2,000석의 예배당을 포함한 교회의 부속실을 수직적으로 적충하여 신도시의 시각적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고, 1층 로비와 외부 광장을 연결하여 교회건축의 공간적 공공성을 강조했다.



#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여수 EXPO 2012 Yeosu Korea 'Aqua Planet Yeosu'

• 설계자 : 김태집\_(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한화건설건축주 : (주)여수씨월드

# 심사평

여수 엑스포 이후에도 존치하는 시설로 계획된 아쿠아플라넷은 34,000마리의 수중동물이 사는 국제 규모의 수족관을 설치했다. 선택 관람이 가능한 전시주제로 세 개의 비정형 매스를 연결하였고, 2층의 카페테리아와 수변 데크는 여수엑스포 단지 내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 Branksome Hall Asia

• 설계자 : 김관중\_(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한화건설** 

• 건축주 : 주식회사 비에이치제주

### 심사평

제주의 자연 경관에 순응하는 새로운 학교 단지로 계획되었다. 학교 건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자형 편복도를 탈피하여 몇 개의 원형 교사동으로 분리하고 체육관과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보행 인공데크 로 연결했다.



# 드래곤플라이 MDC 타워

Dragonfly DMC Tower

• 설계자 : 신승현\_(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대건설(주)건축주 : (주)드래곤플라이

### 심사평

중심부를 비워내고 코어를 외주부에 배치함으로써 일반적인 고층사 무소 건축의 중심-외주부 관계를 역전시켰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 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타공 패널이 사면을 감싸도록 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외피시스템과 저층부를 통해 외부공간을 중심부로 끌어들임 으로써 기술과 공간 혁신을 시도한 것에 주목했다.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Science Museum, EWHA Womens University

• 설계자 : 김정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시공자 : 현대건설(주)건축주 : (학)이화학당

### 심사평

두 건물 사이의 좁고 경사진 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테라스형 건물을 끼워 넣었다. 출입구에서는 중복도로 시작하여 배면에는 중정 을 둔 편복도의 강의실과 실험실을 배치하였다. 절제된 형태와 재료, 군더더기 없는 우수한 대학 건축으로 평가했다.



# 혜초하우스

Hyecho House

• 설계자 : 정일교\_(주)건축사사무소 엠에이알유

시공자 : 대림산업(주)건축주 : (주)아모레퍼시픽

### 심사평

객실, 복도, 로비로 구성된 단순한 공간조직을 ㄷ자형으로 배치하였고 일체의 장식을 배제하면서도 고품격의 재료와 디테일로 마감했다. 상부의 육중한 붉은 벽돌과 하부의 노출 콘크리트를 결합한 간결한 2단 구성의 혜초하우스는 근대주의 정신에 충실한 건축으로 평가했다.



# SBS 프리즘타워

SBS Prism Tower

• 설계자 : 정동명 (주)지원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태영건설건축주 : (주)에스비에스

### 심사평

제작 및 지원 사무실, 스튜디오, 공개스튜디오 등 성격과 규모가 다른 단위 공간을 지상 17층, 지하 5층의 단순한 입방체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였고, 지상 10층에서 지붕까지 개방된 중앙의 아트리움은 사무공간에 빛을 유입시키고 있다. 열린 사무공간과 닫힌 제작공간은 픽셀을 연상하는 반사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마감하여 통일감과 변화감을 추구했다.



# 바라움

# **BAR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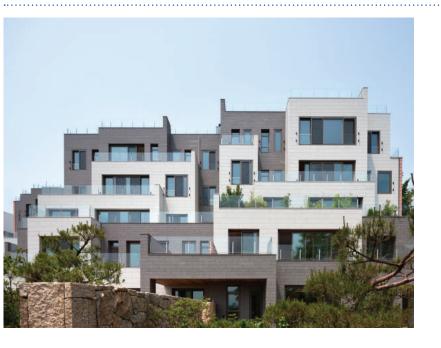
• 설계자 : **이기옥**\_(주)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식회사 예지인종합건설** 

• 건축주 : **이강민** 

### 심사평

3미터 고저차가 있는 단독주택지에 주인세대와 임대세대가 거주하는 세 동의 덩어리를 수평 수직으로 연결했다. 중심부에 계단과 복도를 따라 다채로운 내외부의 풍경이 펼쳐진다. 두 세대가 사는 흥미로운 공간 구성을 만든 것에 주목했다.



# 라테라스 한남

# Laterrasse Hannam

• 설계자 : 김정임\_(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동양/건설부문 본부지점** 

• 건축주 : **(주)유니온씨엠** 

### 심사평

한강을 내려다보는 단독주택 3필지에 15세대가 거주하는 테라스형 공 동주택으로 계획되었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급주택이 지만 북측의 길에서 보행자들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을 최대한 낮추어 조망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 게스트하우스 리븐델

Guesthouse Rivendell

• 설계자 : 곽희수 (주)이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제효건축주 : 김형종

### 심사평

북한강과 앞산의 수려한 풍광을 마주하고 있는 수변에 세워진 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건물 전체를 게스트하우스로 대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역동적 형태의 노출콘크리트 덩어리는 외부에서는 사방으로 교차하는 방향성을 드러내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각도의 조망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구상되었다.

# 심사총평 - 준공건축물부문

저는 평소에, 같은 땅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경쟁하는 현상설계에서도 설계의 우열을 가리는 일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건축사의 투철한 작가의식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면 그 시대의식은 모두 귀하고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주의 건축목적에 부합여부를 따질 수는 있어, 그 경우의 가장 적합한 안을 뽑는 것이지 우열의 등수를 매기는 일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땅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며 조건도 많은 차이가 나는 건축을 두고 등수를 매겨 뽑는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의심과는 관계없이, 우리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사정을 감안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를 넘나드는 건축상 제도가 여럿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저도 일선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라 그 설계과정의 험난함과 결과로서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한 회한이 늘 사무치기 때문일 지도 모릅니다. 완성된 건축물이 우리에게 어떤 작은 감동이라도 준다면, 온갖 험한 과정을 거치며 상처받고 바뀌어 지기까지 하는 그 건축의 원래 개념은 얼마나 더욱 감동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작품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저는 남의 귀한 작품을 심사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정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수락해야 했고 게다가 위원장이 되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만, 이 상은 설계자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자에게도 같이 주는 상이어서 이런 종류의 상은 어느 무엇보다도 그 협력과 완성의 정도에 심사의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설계의 내용만을 따지게 되면 늘 관념적 기준 때문에 선정여부를 헤매는 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시각적인 물증들이 즐비하여 심사가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올해 상을 받은 작품들은 대부분 이런 기준을 통과한 결과였을 겁니다. 건축사의 설계 창의력은 물론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간 조정 능력(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협조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이해한 건축주의 패트론적 태도, 건축 개념에 대한 이해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시공자의 장인적 기술력. 세 가지가 소위 정립된 결과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좋은 건축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 가치를 공유한 이번 심사의 결과에 저는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상신청을 한 동료 건축사들을 심사한다는 게 불편하여, 심사 내내 저는 늘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도 동료 심사위원들의 지적 통찰력과 노련한 경험이 그런 저의 못난 태도를 덮어주었습니다. 간혹, 하는 수 없이 제가 결론을 내어야 했을 때, 이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심사결과는 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심사를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내어준 동료 심사위원들의 노고를 다시 치하하고 그 성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는 것은 역시, 의욕적으로 수상신청을 하였지만 수상에서 제외된 동료건축사들의 실망입니다.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줄곧 기피해오던 이 제도에 저도 기꺼이 참여하여 가능하면 매년 제 작업에 대한 동료 건축사들의 심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올해 저희 심사위원들이 세운 잣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내세워서 결국 이 땅의 괄목할 만한 건축문화를 이루는데 이 한국건 축문화대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의미 있으며 그래서 가장 영예로운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사위원장 승효상



## 계획건축물부문

#### □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2012, 3, 4 ~ 5, 16

▶ 접수 :

• 1차 작품계획(안) 접수 : 5. 30 ~ 5.31(09:00 ~ 18:00)

• 2차 패널 및 모형 접수 : 7. 22(09:00 ~ 18:00)

▶ 심사 :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 4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7, 23

• 3차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 7. 25

▶ 시상식 : 10, 15(14:00)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수상작 전시 : 10. 15 ~ 17 / 장소 : 건설회관 2층 로비

## □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지역×문화, 再生…

### □ 심사

가. 심사방법: 작품계획안. 패널 및 모형. 최종심사

나 심사위원 :

서용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심사위원장 강철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김규린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이성엽 아림 건축사사무소

장현숙 (주)제이드 종합건축사사무소

## □ 시상내용

▶ 대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최우수상(3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8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 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예정

## 대상

• 남영동 2013

## 최우수상

- 다시 만나다
- 소외된 옛 골목의 기억을 풀어내다
- 이태원과 용산공원 사이를 걷다

## 우수상

- 시간, 공간 기억의 수렴
- 축제의 지붕
-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Industrial Culture Park
- 상주시 폐광산의 새로운 지역성 귀농으로 재성장을 도모하다
- 행궁 옆 자람터
- 같은 장소, 다른 시간
- 벽이 흘러내려 산이 되다 : 낙원상가 재생 프로젝트
- 터, 무늬 있는 공원

### 입선

- 마산 임항선 문화열차, 도시에 문화를 수혈하다
- 탁류\_군산 구도심 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재생 계획안
- 백발소녀의 꿈
- 공중산책
- 딜쿠샤. 역사의 뒤안길을 잇다.
- 역사에서 문화광장으로…
- 광주광역시 시청 앞 평화의 공원 재생을 통한 직장인 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안
- 이웃하여 마주보다

- 공생 ; 군산 철길 마을의 문화태동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문화를 이식하다.
  - 장항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의 장항화물역/광장 계획안
  - 공명(共鳴)
  - 군산의 군산(郡産) 군산에 모여 군산을 만들다
  - 광희문, 성곽의 기억을 따라
  - 철로의 흔적을 따라 뻗어나가는 공간
  - 닫힘과 소통의 공존
  - 흔적의 치유
  -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는 곳
  - Synergy; 개항, 개방과 폐쇄의 공존
  - 이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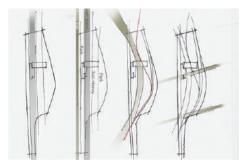
## 남영동 2013

유현미, 성은희, 박진효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7080년대의 독재와 민주주의 충돌로 인한 우리의 이픈 역사는 2013년 누군가의 상처의 실체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대상황을 기억해야 하지 않는가의의문이 project의 시작이었다. site는 서울 남영동대공분실로 민주열사들이 고문당하던 곳이기도하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과거권력의 상징인 이 건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2013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역사를, 건물을 바라보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지서쪽의 철도역으로 인한 6m의 벽은 대공분 실에서 고문받고있던 민주열사가 넘고싶었을 염 원의 벽이며, 모든 사건을 보고있었을 기억적 장 치로서 과거 역사적 사실전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벽축에 반하는 새로운 벽은 사람들 이 동선 시선을 유도하며, 역사적 조경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추모라고 하여 묵념하고 그들을 신 격화하여 올려다볼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용기를 기 억 감사하며, 개인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참된 민 주주의를 고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인프라와 대지사이의 벽은 기억적 장치로서 히 스토리라인으로 존재하며, 과거의 선과 현재의 선이 만나는 곳에 추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에 과거역사 에 현재의 나를 비춰보고 반성하고 느꼈으면 했 습니다. 과거 역사적 아픔과 억압의 상징인 대공 분실을 리모델링 함으로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 하고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Master plan process







## 다시 만나다 **노태영, 박종혁, 김현우**\_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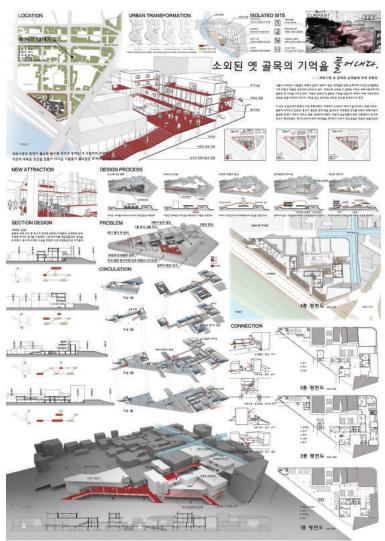




## 소외된 옛 골목의 기억을 풀어내다

**이은율, 윤주용, 최감용**\_청주대학교 건축학과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이태원과 용산공원 사이를 걷다

**김상철**\_경남대학교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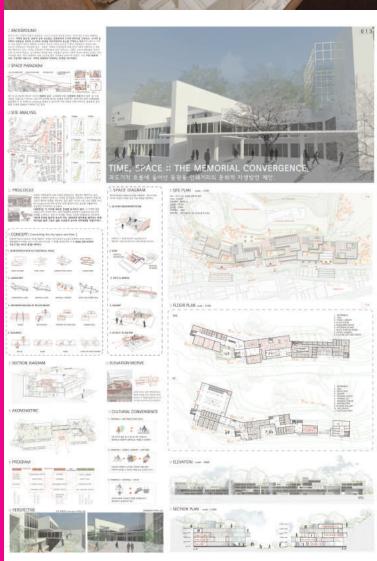




# 시간, 공간 - 기억의 수렴

**박연주, 정희경\_**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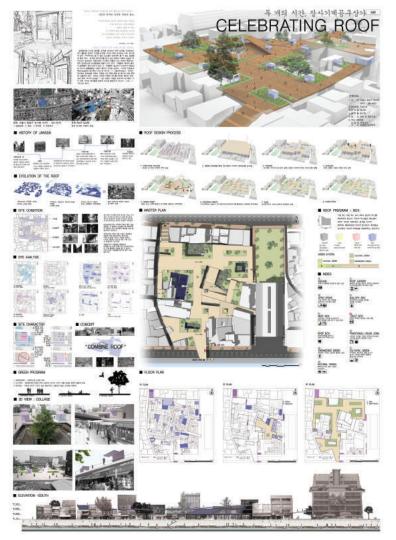


## 축제의 지붕 **이종찬, 고현호, 김으뜸**\_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Industrial Culture Park 이승호\_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전공







## 상주시 폐광산의 새로운 지역성 -귀농으로 재성장을 도모하다 조원호, 김성진, 이영욱\_한발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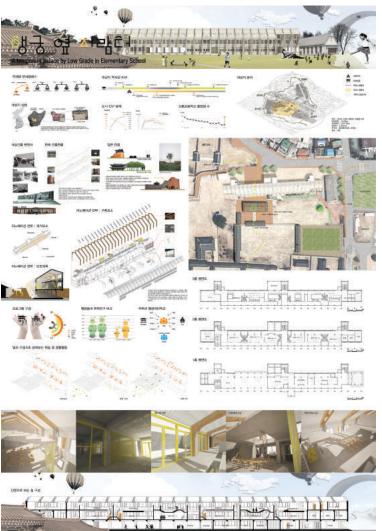




## 행궁 옆 자람터

이현수\_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 같은 장소, 다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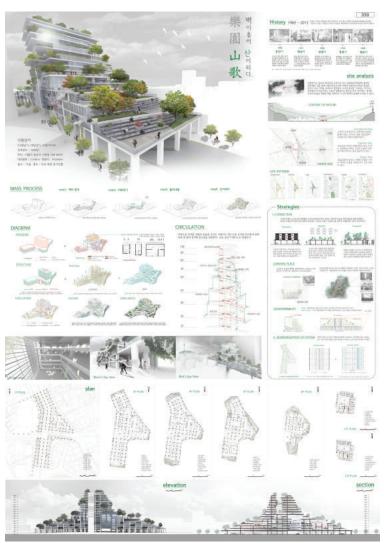
한지수\_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김대천\_㈜마디 종합건축사사무소



# 벽이 흘러내려 산이 되다 : 낙원상가 재생 프로젝트 **윤순혁**\_중앙대학교 건축학부







# 터, 무늬 있는 공원

정찬호\_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공생 ; 군산 철길 마을의 문화태동

**권대준\_**국민대학교 건축학과



탁류\_군산 구도심 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재생 계획안

**오종화, 위대한, 김형섭\_**가천대학교 건축학과



마산 임항선 문화열차, 도시에 문화를 수혈하다 최지훈, 김웅, 최순기, 홍익대학교 건축학 전공



백발소녀의 꿈 - 대구동촌 일대 위안부, 주민재생 및 활성화 계획안 공수빈\_한발대학교 건축학과



공중산책 - 철도시설 공중권 확보를 거점으로 한 낙후시설 재생방안 홍병진\_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딜쿠샤, 역사의 뒤안길을 잇다 유승훈\_한발대학교 건축학과



광주광역시 시청 앞 평화의 공원 재생을 통한 직장인 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안 김정운, 안성인, 박민우\_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역사에서 문화광장으로… 백종환, 김민지, Urandulguun\_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이웃하여 마주보다



## 장항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의 장항화물역 · 광장 계획안 김종성, 김원형\_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문화를 이식하다 김해수, 고승우, 김원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공명(共鳴) - 다시들리는 인천의 바다소리… **손주석, 김형진, 안세진**\_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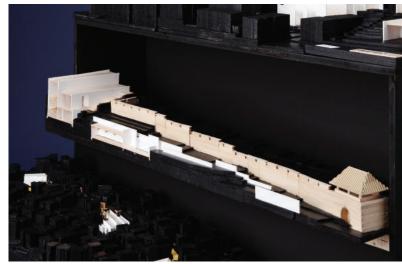


군산의 군산(郡産) — 군산에 모여 군산을 만들다

변명진, 모상호, 김현상\_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광희문, 성곽의 기억을 따라 정지혜\_한경대학교 건축학과



철로의 흔적을 따라 뻗어나가는 공간 김소영\_충남대학교 건축학과



# 닫힘과 소통의 공존

**김진영**\_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김다은**\_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흔적의 치유 **전인우**\_충북대학교 건축학과



Synergy; 개항, 개방과 폐쇄의 공존 **장여진, 문혜선, 김지훈\_**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는 곳

**김은영, 윤소연, 이송현**\_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이어지다 **신소영**\_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심사 이모저모



## 심사총평 - 계획건축물부문

도시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재미있는 이야기가 묻어 있는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간들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대부분 사라지고 새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과 도시의 역사를 단절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 개발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함께 하면서 기존의 관심 밖 공간에 전문가의 치유 손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념이 '지역+문화, 재생'의 계획건축물 공모 주제의 서문이다. 이는 각 지역의 학교와 사회에서 건축을 위해 정진하는 응모자들에게 던 진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해결을 통해 그 지역만의 역사성과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지역의 독특함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 이다. 즉,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건축의 미래를 발견해 보라는 바람에서 였다.

지난날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공급 위주의 건축정책 하에선 개발이라는 화두만 있었다. 건축이 문화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건설의한 분야로 취급되어 개발과 공급이라는 사회적 차원을 우선시하다보니 우리가 보전하고 가꾸어야할 건축적 자산들이 그 가치와 문화적 측면을 따져보기도 전에 사라지고 개발되어 버렸던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역사로서의 미래적 가치를 재생해 보아야할 시점인 것이다. 건축담론 속에 우리의 과거를 담았던 지역 속의 문화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미래의 건축사들, 그들의 시각으로 본 것을 찾고 싶었다.

이번 공모전에 전국의 많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건축인이 참여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본 그들의 안목에 밝은 미래를 보았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울러 국력이 이만큼 성장한 시대에 우리의 과거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줄로만 알았던 학생들의 시각에도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잘 전달되고 있었다. 그 작품이 이번 공모전의 대상이었다.

입상한 작품이나 응모한 작품 모두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가 넘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공모전 주제가 한 학기의 수업 주 제였다고 한다. 전국에서 응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며,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 후배 건축사들의 등용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응모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장 서용주

#### 심사 이모저모













#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 PRUGIO WORLDMARK, JAMSIL



설계자 | 변희협 KIRA | ㈜시몽 건축사사무소

서울대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시몽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구로청소년 수련관, 서울대 인문사회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농심 R&D CENTER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숙향, 한대희, 이철우, 전성래, 박근영, 성현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창민우구조컨설탄트 - 기계설비분야: 주식회사 하나기연 - 전기분야: 주식회사 하나기연 - 토목분야: ㈜한국지오 컨설턴트

건축주 | 잠실프로젝트금융투자(주) 감리자 | (주)시몽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대우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4
주요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주거
대지면적(Site Area) | 9,944㎡
건축면적(Building Area) | 3,805,94㎡
연면적(Gross Floor Area) | 89,046,6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27%
용적률(Floor Area Ratio) | 598,16%
규모(Building Scope) | B4-39F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 플랫플레이트슬라브
주요마감재 | 화강석 / 실리콘탄성코팅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1~2010,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4~2013, 06

## Client | Jamsil Project Financing Vehicle

## Architect | Byun, Hee-hyub

Project team | Kim, Sook-hyang / Han, Dae-hee / Lee, Chul-woo / Jeon, Sung-rae / Park, keun-young / Sung, Hyun-ju

### ${\bf General\ Contractor\ |\ DAEW00\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11-4, Sincheon-dong,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rea Structure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 flat plate slab Structure Engineer | CHANG MINWOO STRUCTURAL CONSULTANTS HAVC Engineer | HANA CONSULTING ENGINEERS Co., Ltd. Electrical Engineer | HANA CONSULTING ENGINEERS Co., Ltd. Civil Engineer | KOREA GEO CONSULTANTS
Finishing | Granite Silicone Elastomeric Coating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주거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건물이다. 계획부지 11—4번지 일대는 초기 도시구조가 형성된 이후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 잠실지역 대단지 아파트의 거주성은 잠실역 상업시설과 충돌, 교류하며 느슨 했던 이 지역을 대규모 오피스와 주상복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상 39층, 연면적 27,000평의 대규모 개발은 기존시설과 복잡, 미묘하게 충돌하고 상호 작용한다. 충돌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였다. 빛과 바람의 길을 열어주고 주변 건물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가로 경관에 순응하고, 안정적이고 세련된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 지속 가능한 구조,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정위(正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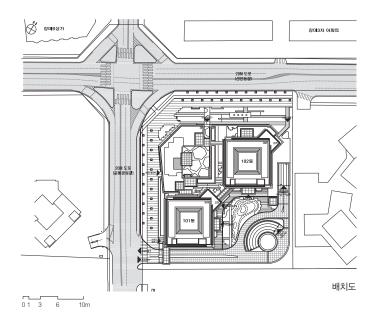
건축 행위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환경을 구축하는 첫 단추는 건물을 「어떻게 제자리에 놓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주변 건물과 외부 공간에 「정위」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가치 있는 조직이 된다.

#### 조화(調和)

잘 놓여진 건물을 조형(造形)하고 색감을 디자인하는 작업은 사람에게 옷을 입하는 일과 같다. 아하거나 튀지 않으면서 주위사람과 장소에 어울리는 세련됨을 우리는 조화(調和)라 한다.

##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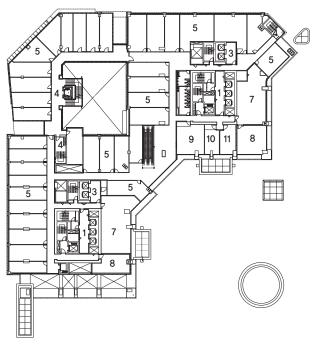
지속 가능성은 건축행위자(건축사, 행정가, 시행자, 시공자 등)의 사회적 책무이다. 구조적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평면의 가변성, 동선의 단순화, 편리성,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는 필수 항목이다. 이를 위해 본 건물은 column & flat slab 구조의 채택, 지역난방과 태양광 패널의 도입, 친환경, 에너지효율 최고 등급을 채택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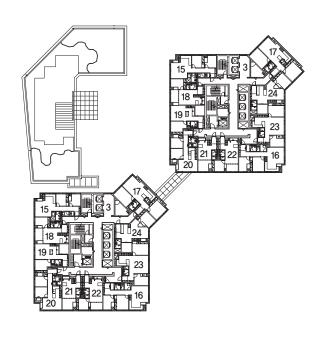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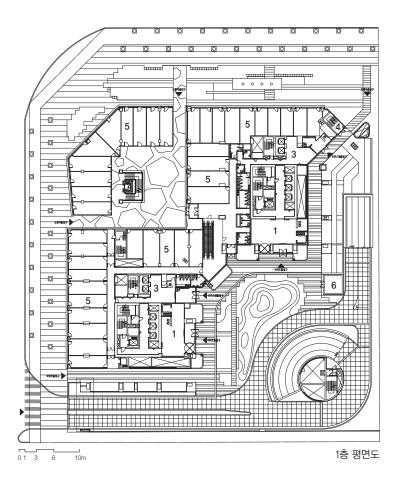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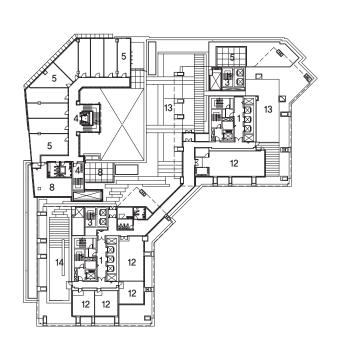
9. 방재실	17. 오피스텔 C Type
10. MDF	18. 오피스텔 D Type
11. 비상발전기실	19. 오피스텔 E Type
12. 부대시설	20. 오피스텔 F Type
13. 놀이터	21. 오피스텔 G Type
14. 휴게공간	22. 오피스텔 H Type
15. 오피스텔 A Type	23. 오피스텔 I Type
16. 오피스텔 B Type	24. 오피스텔 J Type
	10. MDF 11. 비상발전기실 12. 부대시설 13. 놀이터 14. 휴게공간 15. 오피스텔 A Type





2층 평면도 4~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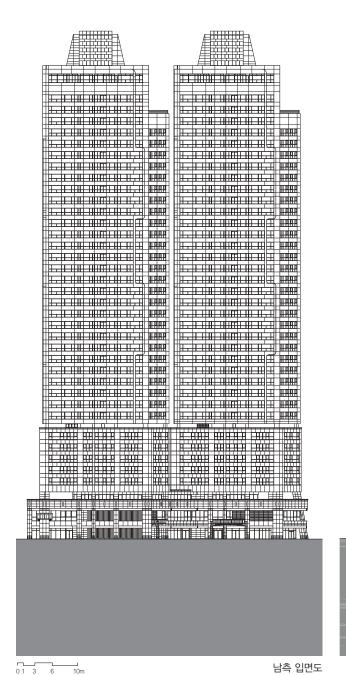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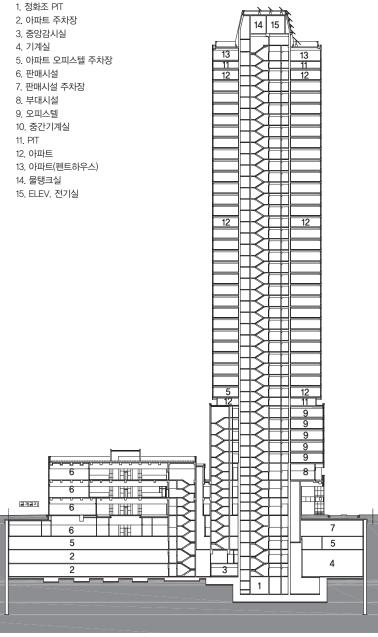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단면도

#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GOYANG-SAMSONG SEWAGE TREATMENT CENTER



설계자 | 임준빈\_KIRA |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대우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실무를 했다. 1995년에 건축사사무소 네오 스페이스를 설립하였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낙동강물문화관 리노베이션. 낙동강기념조형관, 예천양수발전소 후생동, 남부수자원 수질복원센터, 이호랜드, SDA사옥, KB연구소, 전남서부권정수장, 삼성자동차부품공장등이 있다.

• 설계팀 : 정호상, 김치림, 송기준, 방은지, 윤지선, 오지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맥구조

- 기계설비분야 : 태영설비

- 토목분야 : ㈜유신코퍼레이션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 ㈜태영건설

대지위치 |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면적(Site Area) | 23,091.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68.83㎡

연면적(Gross Floor Area) | 4,483.3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06%

용적률(Floor Area Ratio) | 5.86%

규모(Building Scope) | B2-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알루미늄 패널, 베이스패널, 우드그릴 등

내부마감 : 다채무늬페인트, 수성페인트 등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6  $\sim$  2010.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2  $\sim$  2013. 09

사진(Photographer) | Park, Jae-hyung

## Client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Architect | Yim, Joon-bin

Project team | Jung, Ho-sang / Kim, Chi-lim / Song, Ki-joon / Bang, Eun-ji / Yoon, Ji-sun / Oh, Ji-sun

#### General Contractor | Taeyo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Goyang-Samsong, Housing Land Development Business District
Structure | Exterior Finish : Aluminum Panel, Base Panel, Wood Grill etc
Interior Finish : water paint, Various Patterned Paint etc

Structure Engineer | MAC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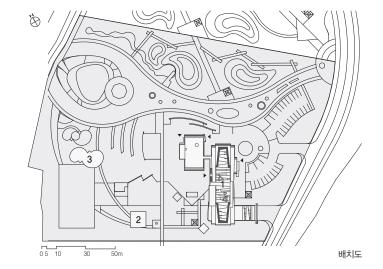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 Taeyoung Eng

Civil Engineer |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Finishing Materials |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1. 수질복원센터 관리동 2. 비상계단실 3. 야외 화장실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22,000세대가 넘는 주거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수질복원센터가 계획되었다. 대지주변은 하천과 녹지로 둘러 싸여있고 지하에 수질복원시설을 지상에는 관리시설과 홍보시설을 공원과함께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위의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의 녹지를 적극연계 유입하여 Green Carpet을 따라 Eco Street를 조성하고 주변풍경을 담아내고 자연 속에 살아 숨 쉬며 자연의 흐름을 신도시 속에 스며들게 하는 친환경 ECO-BUILDING으로 계획하였다.

지역 커뮤니티의 맥락으로 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접한 근린공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조화되는 친환경 건축물로 교육, 만남, 건강 등 다양한 컨텐츠의 소통 및 교류 가능한 수질복원센터로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圖

조감도







1. 전기실 2. 로비

6. 중앙제어실 7. 문서고 8.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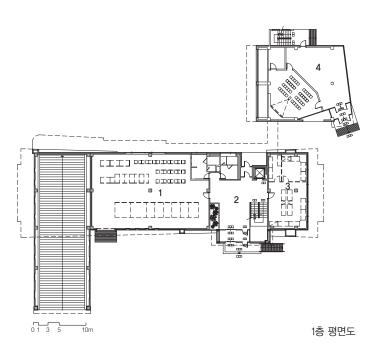
11. 식당 12. 데크 13. 옥상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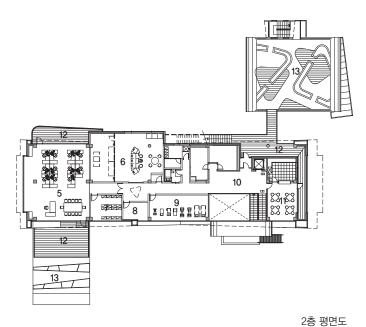
3. 실험실 4. 환경홍보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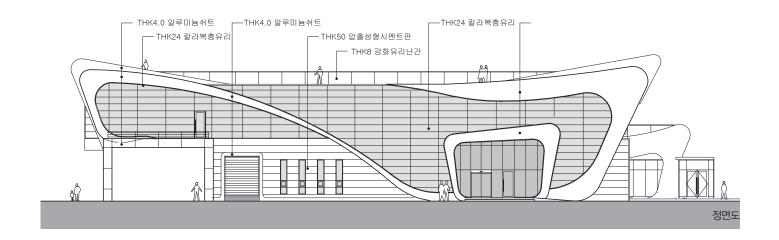
9. 체력단련실

5. 사무실

10.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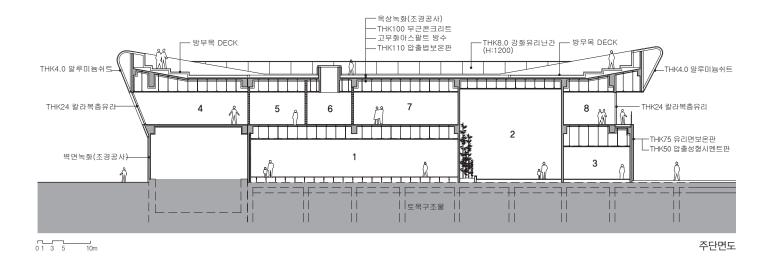






 1. 전기실
 3. 실험실
 5. 문서고
 7. 체력단련실

 2. 로비
 4. 사무실
 6. 복도
 8. 식당







모형 전면 모형 후면

# 서남물재생센타공원 관리사무소

# SOUTHWEST WATER RESTORATION CENTER PARK MANAGEMENT OFFICE



**설계자 | 김석환**\_KIRA | 터 · 울 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4년 터·울 건축사사 무소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산업대학교, 광주대, 삼육대 겸임 및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0~1997년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건축을 기행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일산신도시 K씨주택, 곤지암주택, 청풍헌, 목 마도서관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 등이 있다.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석산구조

기계설비분야: 대광엔지니어링토목분야: 터·울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강서구청 감리자 | 김석환 시공사 | ㈜진평

대지위치 | 서울 강서구 마곡동 123번지

주요용도 | 관리사무소

대지면적(Site Area) | 150.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0.68㎡

연면적(Gross Floor Area) | 129,2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15%

용적률(Floor Area Ratio) | 0.15%

규모(Building Scope) | 1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파쇄석 붙이기

내부 : 송판노출콘크리트, 목재 구조재노출, 석고보드위 친환경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2.  $\sim$  2010.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8  $\sim$  2011. 01

사진(Photographer) | Kim, Suk-hwan

#### Client | Gangseo-gu

#### Architect | Kim, Suk-hwan

## General Contractor | Jinpyung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123, Magok-dong, Gangse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eoksan Structural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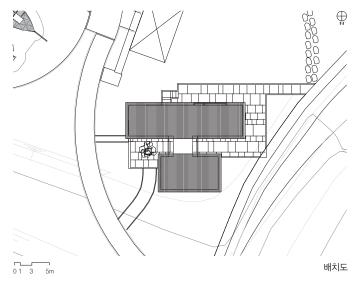
Civil Engineer | Place-hedge Architects & Planners

HVAC & Electrical Engineer | Daekwa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Stone, Wood, Pair-Glass









이 건물이 입지한 강서구 마곡동 지역은 서울의 일부지만 조선시대에는 양천현이 소재한 별개의 고을이었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입지적 특성은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이 이곳 양천 현감을 지내며 한강주변의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렸던일과 연관지어 다가온다.

이 대지가 속한 서남물재생공원은 바로 그 풍광을 이루는 한강변에 위치하는데 하수종말처리 서설 주변의 공공용지를 사용해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다. 계 획 부지는 그 공원내 북동쪽으로 완만한 지형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원 호를 그리듯이 남동쪽으로 지나는 공원 산책로에 면하여 있는데 공원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이다.

건물의 배치는 삼각주처럼 생긴 부지 형상과 부지를 감싸며 도는 에둘러 난 길, 그리고 완만한 경사지형의 조건들을 감안해 계획했다. 건물은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도록 약간의 거리를 두어 길로 연결시켰으며 두 개의 진입로 가 만나는 지점에 마당을 두어 순환성과 영역성을 갖게 했다. 그리고 북서측 외 부에도 마당을 두어 진입 마당과 다른 뒷마당 성격의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다.

평면 계획은 대지의 형상 및 대지 주변의 동선과 관계를 고려해 구상하였다. 전후면 대지 폭의 변화에 대응해 실의 크기에 적합한 실을 균형감 있게 배치했다. 일상의 사무 공간인 관리실과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편의 시설을 분리해 배 치했으며,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나뉜 채 사이에 사잇 마당을 두어 내외부 공 간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건물 이용자의 행태와 부합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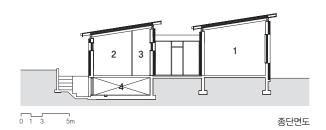
이 건물의 전체적인 인상은 단아하면서 빈 마당과 물성, 자연과의 균형감각 등한국전통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덕목들과 같은 맥락이 느껴지도록 했다. 즉 단층의 옆으로 긴 매스에 의해 대지와 일체감을 갖게 하고 마당의 여백감 및 돌과목재에 의해 자연스런 재질감과 물성이 느껴지도록 하려 했다. 그리고 자연과요철로 결합된 평면에 의해 건물 주변을 오기는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인상을느낄 수 있게 했다. 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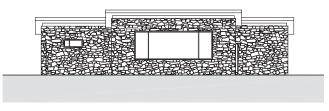


1. 현관 1. 전원 2. 방풍실 3. 사무실 4. 탈의실 5. 샤워실 6. 화장실 7. 창고

마당 1층 평면도







정면도











# 세종소방서 \_당선작

## **SEJONG FIRE STATION**

발주자 : 세종특별자치시

설계자 : 문영학 KIRA | 엘탑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유재유 | ㈜야손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경진, 김용우(엘탑디자인)

####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티섹구조엔지니어링

- 기계 : (주)세아엠이씨

– 전기 : 주식회사 전기설계 협인

- 토목 : (주)율곡엔지니어링 율곡E&C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청 1-9

지역/지구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소방서)

**대지면적** 5,000.00m²

건축면적 2 058 47m²

**연 면 적** 4,370,89㎡

건 폐 율 41.17%

용 적 률 87.42%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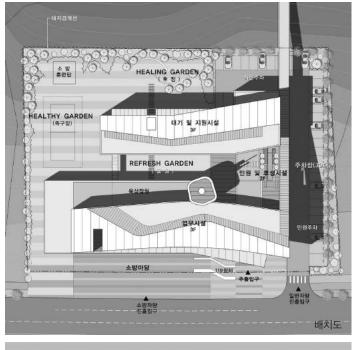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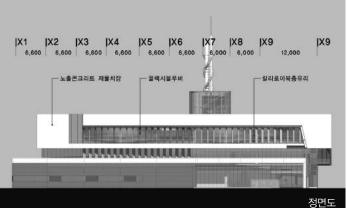
주요마감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제물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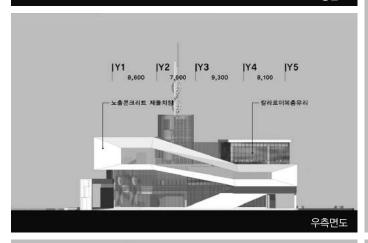
"세종소방서건립설계공모"는 일반적인 현상과 달리 스케치업, 오토캐드를 이용한 작품공모로 비용절감과, 설계업체의 많은 참여를 유도한 사업이다. 외관위주의 심사보다는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했으리라 본다. 세종소방서는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로 시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신뢰성과 친근함을 주기위해 안전을 항구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로 세이프 휠을 제안 하였다. 세이프 휠은 세종시를 지키며 감싸 안는 듯한 라운드 선형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였다. 소방서 고유의 기능을 위해 소방차고와 소방대원의 대기공간, 구조대 및 안전센터를 1층에 인접 배치하여 신속한 소방응급 체계를 조성하였고,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소방대원들의 휴식과 재활, 업무의 쾌적성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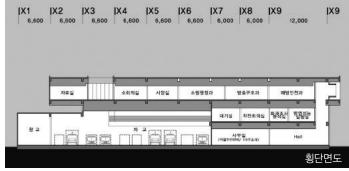
건물의 배치형태는 원수산의 등고선 형태와 도로변의 차량 속도에 따른 인지성을 고려하여 등고 선 형태의 휘어진 mass로 계획 하였다. 특히 전면의 소방출동시설 및 업무시설과 후면의 프라이 비트한 대기 및 지원시설 사이에 계획된 중정공간은 소방대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자연의 공간이 자 공동의 활동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소방서의 공공적 역할증대를 위해 민원실을 1층에 두어 접 근성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전시, 체험, 홍보공간, 강당, 식당 등을 집중 배치하여 필요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방서의 외관은 노출 콘크리트와 고유의 붉은색을 조합하여 모던한 형태로, 플렛 시티 세종시의 수평성과 유연한 사선을 반영하여 안정감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세 종소방서는 소방대원들에게는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심신을 달래는 편안한 공간으로써, 세종시민 들에게는 찾기 쉽고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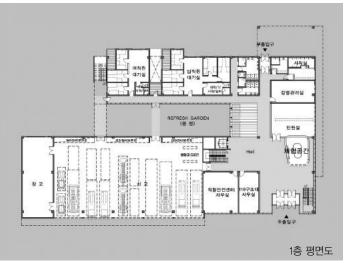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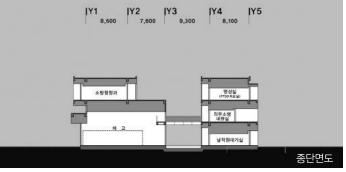














# 세종소방서 \_ 우수작

## **SEJONG FIRE STATION**

발주자 : 세종특별자치시

설계자: 황광범 KIRA | ㈜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송영석 KIRA | ㈜에이원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남기광, 권영근, 고영철, 김현우, 장재철, 김명준, 장구, 신상진(한빛건축)

### 전문기술협력

- 구조 : 동양구조- 토목 : 다산ENG- 기계 : 우원 M&E- 전기/통신 : 세종기술

- 조경 : 조경설계 D1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청 1-9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소방서)

**대지면적** 5,000.00㎡

건축면적 1,763.46㎡

**연 면 적** 4,492.75㎡

건 폐 율 35.27%

**용 적 률** 84.67%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요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마천석 알루미늄 복합패널, 목재루버 어느 소방관의 간절한 기도 안에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진한 사명감 그리고 가족에가 담겨 있다. 기도 마지막 구절의 '내민손'은 이러한 소방관들의 구조와 희생정신의 상징이며 우리는 이 를 Motive로 하여 소방서를 계획하였다. 세종소방서는 도시를 향해 손을 내미는 형상이 되어 화 재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연과 어우러짐 속에 소방관들의 Amenity 공간이 된다.

상징의 손\_ 소방관의 손을 형상화한 소방서는 도시를 향해 열린 시아를 가진다.

자연의 흐름을 닮은 손\_ 산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의 흐름을 닮은 소방서를 계획하다.

**공간을 담은 손** 기능에 따라 공간을 적절하게 담아내는 형태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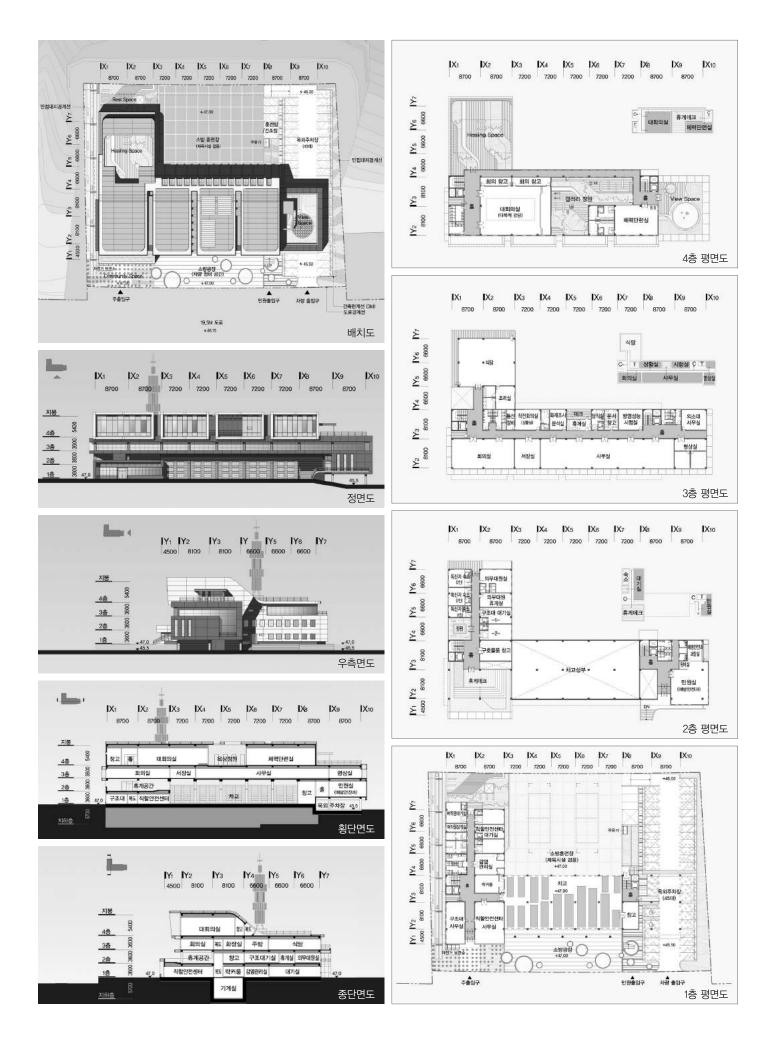
환경을 생각하는 손\_ 근무자의 Amenity와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하다.

• 1층평면: 소방차고와 근접한 대기공간 구성으로 신속한 출동동선 계획

• 2층평면 : 1층 및 주차장에서 출입구계획 및 예방안전과 민원실의 통합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 3층평면: 남향배치의 쾌적한 사무공간 계획

• 4층평면 : 다용도 대회의실 및 옥외휴게공간 계획 📋



##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Advantage of a Rescissory Action for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사안의 개요

-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외 7필지 지상 반포 주공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6. 27. 구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 제18조 제1항, 부칙 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7.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2) 피고는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 2, 26. 임시총회에서 전체조합원 1,720명 중 1,551명의 참석과 1,089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05. 9, 24.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831명 중 1,033명의 참석과 94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의결한 후, 2005. 10, 2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 (3)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006. 4. 1.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부분 및 추가공사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증감과 아파트 일반분양가 및 임대분양 매각대금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의 변경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9. 7. 7.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결의하여 2009. 11. 1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4) 원고들은 종래 이사건 아파트 중 18평형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 원들인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재건축결의와 달리 신축건물의 세대수 중 소형 및 대형 평형을 늘리고 중형평형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총사업비도 50% 가량 증가시켰으므로 실질적인 재건축결의변경 또는 정관변경에 해당하고 특별의결정 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반의결정족수만으로 의결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대법원 2012, 3, 22, 2011두 6400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1) 항소심(원심)에서 당초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거나 새로 운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바, 원심은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전고시의 일부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원심에 대해 원고들은 이전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고(상고이유 제1점),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발생으로 중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상고이유 제2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 (3)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4) 아울러 대법원 다수의견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 판례 평석

- (1)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제1점에 관한 판단에서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는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인 데 반해,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일정한 경우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별개의견이다. 이는 이전고시 이후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개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주체의 권리구제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 (2)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 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 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3) 반면, 대법원 별개의견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관리처분계획과 별개의 처분으로 보는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의 목적 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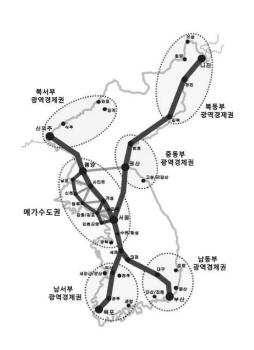
#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상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

향후 한국 건축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들자면 '남북통일'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 · 통신 ·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도시 기반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동 붐을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의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비추어보면 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치적 통합이 미진한 단계에서도 경제적 교류의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바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 | 민경태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경제 · Ⅲ 전공

199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건설에서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2003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 투자,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Ⅱ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구성

The Organization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개념

본 구상에서 제안하는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은 초고속 교통·통신 및 에너지 등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일련의도시 네트워크이다. 여기에서의 도시 간 연결은 기존의 물리적 연결성의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미 초고속 광대역 통신기술로 인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물론, 미래의 초고속 교통망은 도시 공간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림 1. 한반도 메가수도권 대상 지역 <sup>1)</sup>

메가시티리전 (Mega City Region, MCR):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 제권을 의미한다.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이 단순히 중심도시와 위성도시를 함께 지칭하는 산업화 시대의 개념이었다면, 메가시티리전은 핵심도시와 주변도시의 집적 및 연계를 통해 도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가폴리스(Megapolis) 또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 불리기도 한다.

메가수도권 (Mega Capital City Region, MCCR): 새롭게 제안된 개념으로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지역 및 주변의 주요 거점도시들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한반도 메가수도권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메가시티리전의 기능에 추가하여, 국가의 정치적 중심으로서 수도권 개념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협력 초기단계에서 서울-평양 경제권은 국경을 초월한 광역경제권이라는 점에서 '메가시티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이 성숙되고 정치적 통합이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서울과 평양을 포함하는 정치·외교적 중심으로서, 향후 한반도의 통합적 수도권 기능을 수행하는 '메가수도권'으로 성장할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수도의 기능 및 정부 조직도 하나의 도시에 집중하여 배치시킬 필요 없이, 메가수도권을 구성하는 각 도시들의 특성과 장점에 적합하도록 분산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 한반도의 수도는 하나의 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수도권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정치·경제적 기능을 공유하는 도시 네트워크 형태를 구상해볼 수 있다

서울-평양과 주변의 서해안 거점도시를 네트워크 인프라로 연결하면 하나의 도시와 같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 이 지역은 한반도 성장 동력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경학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동북아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남포·해주 등 3개의 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관통하는 고속교통망을 건설하면 중국 및 러시아와도 육로로 연결될수 있다. 또한 산업 역량 및 인프라가 집중된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남한의 선진화된 역량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북한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다.

## 수도권 공간의 확장 및 개념 변화

기술 발전에 의해 서울-평양 간 200km 거리는 동일한 도시권 내로 여겨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 인류가 매일 생활에서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이동 속도와 무관하게 1시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울-평양 간의 거리가 그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고속 교통수단의 발전은 단순한 물리적 연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및 도시 개념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1990년대에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 패턴이 일상화되었다면, 2020년대에는 서울-평양 간을 출퇴근 하는 생활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개념의 변화는 한반도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한다.

〈표 1〉 평균 이동거리의 변화<sup>2)</sup>

	·
년 도	1시간당 평균 이동거리(km/day)
1800	0.02
1900	1
1990	35
2012*	300(km/hour, 고속철 평균시속)

주) 1800, 1900, 1990년은 프랑스 기준, \*2012년은 중국 고속철의 평균 운행속도 기준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에서는 도시 기능의 유기적 연결을 기반으로 도시들 간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원활하게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지역의 크기는 남북 200km, 동서 100km 내외에 이르는 넓은 공간이므로 여러 거점도시들을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기적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① 기술 진보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기능적 연계

앞으로 도시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는 거리상 한계나 행정구역 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주민의 생활패턴과 기능적 연계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교통·통신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정보 전달과 물리적 이동이 더욱 용이해지고 도시기능의 확장 및 연계가 가능해졌다. 점점 일일생활이 가능한 영역도 확대되고, 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 ② 상호보완적 분업구조에 따른 경제적 연계

서울—평양 경제권의 여러 도시들은 상호보완적 산업협력 관계에 의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기능하게 된다. 남북한은 산업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에 따라 분업구조를 재편하고, 한반도 전체 경제시스템의 수익성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실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간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된 동일 경제권은 하나의 도시와 같이 기능하게 된다.

## ③ 남북한 수도권 통합으로 인한 정치적 연계

초기단계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하며 각자 다른 두 개의 수도를 보유하는 형태이지만, 점차 남북한 협력관계가 성숙됨에 따라 행정적 통합과 제도적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서울—평양 경제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적 집행을 위해 남북한 관련기관이 포함된 통합적 운영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북한 서해안 지역의 지경학적 잠재력

서울-평양 경제권의 주요 거점도시인 남포, 해주, 개성, 사리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 서해안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중국의 황해 연안, 남한의 서해안 지역, 일본의 큐슈 지역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중심이 될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함께 환황해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 서해안 지역과 북한 지역 거점도시들을 서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 한반도의 산업 및 무역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황해도 지역: 황해남도, 황해북도, 그리고 개성직할시를 포함한다. 남한 수도권과 북한 평양권에 근접하여 발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는 요지이다. 평탄한 지역에 위치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하다. 평양-개성간 철도 및 고속도로가 있으며, 남한과의 경의선 및 국도1호선 연결을 통한 발전 잠재력이 크다. 해주항은 서해안 물류 중심지로육성시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평안남도 지역: 평양특별시와 남포직할시, 평안남도를 포함한다. 76 개의 대학과 주요기업들이 집중된 북한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북한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평양은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의 시발점이자 경유지로 기능하고 있다. 남포시는 해상수송, 철도운송, 도로교통이 모두 발달하였으며, 남포항은 북한의 서해 관문으로서 하역능력 800만 톤의 서해 최대항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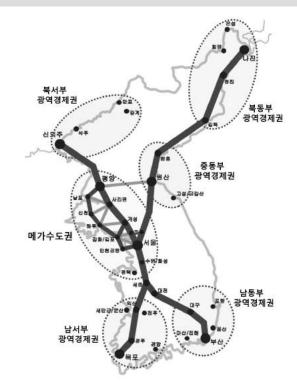


그림 2. 한반도 광역경제권과 K자형 네트워크 <sup>3)</sup>

한반도의 동고서저(東高西低) 지형 특성상 북한의 산업시설 및

<sup>2)</sup> David F. Battern,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Vol. 32, No. 2, (1995), p. 321,

<sup>3)</sup>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189.

인구가 서쪽에 치우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 북한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울-평양 경제권 이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한에서 산업 과 교통 인프라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경부선 축이 북서쪽으로 연 장되어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평양 · 남포 지역은 남한 수도권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고속교통망 을 통한 물리적 연계도 용이하다. 서울-평양 경제권의 네트워크 구조는 북한의 서해안 도시들이 남한 수도권의 발전된 산업 역량 과 인프라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서울-평양 경제권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성장시켜야 한다. 인천공항 일대를 무관세자유 지역으로 육성하고, 항공·해상 교통, 통신, 업무, 레저의 중심이 되는 국제 자유도시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항·남포항·해주항은 대중국 경제협력의 관문으로서 서울-평양 경제권과 세계 경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남포 및 해주는 남한의 인천항, 평택항 등과의 역할 분당 및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서울-평양 경제권의 해상무역 중심항구이자 거점도시로서 육성될 수 있다. 이들 주요 항만과 인천 공항이 서울-평양 경제권의 거점도시들로부터 원활한 접근성을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속 교통망과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한반도를 관통하는 K자형 초고속 교통망과 연결되어 중국의 TCR 및 러시아의 TSR과 연계시켜야할 것이다.

서울-평양 경제권의 북한 서해안 지역은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남포·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한반도 서해 발전축 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발전된 연안지역과는 경쟁과 협력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경쟁력 차별화가 가능한 신산업 지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양·남포권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연구기관, 기업 R&D센터, 벤처 단지 등 남북한 협력지대를 구축하기에 적합하다.

##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국제협력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평양 경제권은 지경학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가장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북한 경제개발의 거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신의주 및 라진-선봉 지역은 실제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합한 곳이며 남한과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개성지역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요 거점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 지역을 해주, 남포, 사리원, 평양까지 영역을 확장시켜서 서울-평양 경제권을 만들면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대북 경제협력 대상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평양 경제권 지역을 벗어난 북한의 다른 경제권

역과 남한과의 협력은 지경학적 관점에서 효과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한국보다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이 더욱 용이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단동과 인접해 있는 북 한 신의주 인근의 황금평 및 위화도 지역은 중국과의 경제특구 협 력이 계획되고 있으며, 나진 · 선봉지구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 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에 북한의 동해 항구에 대 해서도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 청진, 김책, 단천, 흥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동북부 지역 항구들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 한반도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주변국가의 협력 방향<sup>4</sup>

(# 1/ 12 1 0 1 0 M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	주요 도시	우선협력 대상국가	협력 방향					
북서부	신의주, 삭주, 강계, 만포	중국	경제특구 중심, 중국과 협력					
북동부	나진, 선봉, 청진, 김책	중국·러시아	경제특구 중심, 중국 · 러시아와 협력					
중동부	원산, 함흥, 금강산	일본	서울-평양경제권 연계, 일본과 협력					
서울 <del>-</del> 평양 경제권	서울, 인천, 평양, 남포, 개성, 해주	남북한	남북한 분업 및 경제 협력의 중심					
남서부	목포, 광주, 군산, 전주	중국	항구도시 중심, 중국과 협력					
남동부	부산, 울산, 대구, 포항	일본	항구도시 중심, 일본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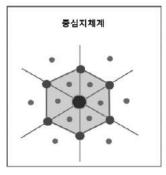
이와 같은 타국가의 적극적 북한 진출은 남북한의 교류가 정체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기업의 독점 개발권이 점점 확대될 경우, 향후 남한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교류 협력이 재개된다면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남한과의 우선적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긴밀한 산업분업구조를 갖춘 상태가 된다면, 해외투자유입에 대해 개방정책을 적용하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을 다른 국가들과 분담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서울-평양 경제권을 중심으로 북한과 협력을 진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치하면서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요 광역경제권들과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는 〈표 2〉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서울-평양 경제권의 다핵분산형 구조

서울-평양 경제권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서울과 평양 등 남북한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및 산업시설이 집중 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을 무조건 억제하고 지방 분산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sup>4)</sup>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90.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단핵집중형 중심지체 계를 유지한 채로 공간적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핵분산 형 네트워크체계를 적용하여 서울-평양 경제권 도시구조를 새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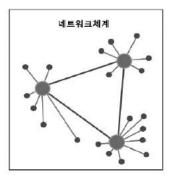


그림 3. 중심지체계와 네트워크체계 5)

게 형성하는 것이다.

남한 수도권의 경우, 거의 모든 도시들이 서로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집중화 및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 그러나 서울—평양 경제권은 보다 넓은 지역에 서로 떨어져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비연속적인 다핵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및 고속교통망체계가 발달되면 도시 기능의 물리적 집중 필요성을 감소시켜분산화가 가능하게 되므로, 하나의 특정 도시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기 보다는 다핵구조의 여러 도시들에 수도권 기능을 분산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평양 경제권은 도시들이 서로 분리된 비연속적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초고속 교통·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도시와 같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핵분산형 도시구조가 가능한 것은 네트워크의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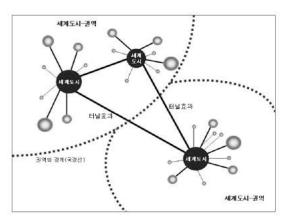


그림 4. 글로벌 도시간 네트워크와 터널효과 6)

성인 분산화 경향과 집중화 경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방향성은 결국 통신망과 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4〉와 같이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터널효과(Tunnel Effect)에 의해 공간적 제약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므로 한 도시로부터 다른 도시까지 중심부간의 접근은 실제 거리보다 더욱 수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 도시 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연결은 내부 교통망을 활용하게 되어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터널효과로 인한 분산화 경향이 발생하게 되지만, 개별 도시 내에서는 중심부로의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울-평양 경제 권의 다핵분산형 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 이면서도 도시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초고속 통신 망은 일정 수준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을 가정하면, 결국 도시 공간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핵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서울-평양 경제권의 교통망에 적용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고속철도는 기존의 경의선 축에 해당하는 평양-사리원-개성-파주-서울 구간을 주축으로 하되, 추가로 개성에서 분기하여 김포를 지나 인천공항으로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을 만들면 평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간선철도는 새롭게 구축하는 서해안 연결축을 통과하도록 하고, 고속도로망은 주요거점도시와 주변도시들을 사다리형태로 연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 도시간의 직접적 연결망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분산형 네트워 크 구조는 향후 남북한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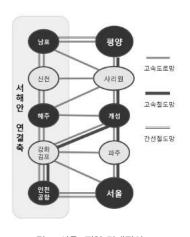


그림 5. 서울-평양 경제권의 다핵분산형 연계구조<sup>7)</sup>

제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전국으로부터 인구 이동 및 집중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리하다. 주요 거점도시인 인천, 남포, 해주, 개성, 그리고 주변도시인 사리원, 신천, 파주, 강화·김포 등을 연계하는 다핵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도시들의 특성에 따라 산업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구조는 중심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고 산업을 효과적으로 배치시키는 데에 적합하다. 거대한 단일 핵을 중심으로 도시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여러 도시들을 연계하는 다핵분산형구조를 형성하여, 일자리의 분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창출하며, 친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기능의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圖

<sup>5)</sup>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London: Routledge, 1996), pp. 57, 59

<sup>6)</sup>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p. 59; 남영우, "세계화시대 글로벌 시티 평택의 발전전략," (고려대학교, 2008), p. 10.

<sup>7)</sup>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106.

## 협회소식

## 제9회 이사회

2013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 설립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의건, 2013년도 건축연구원회계 조정예산(안) 승인의 건, 협회 발전을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 설립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의 별도법인 설립은 회원의 입장에서 분리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건축신고건에 대한 의무적 손해배상공제 증권 발급, 설계도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설계금액에 따라 높아지는 보증료의 공제요율 등의 문제, 본 협회의 감사수감 수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사회의 보고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건축연구원회계 조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당초예산 319,000,000원 → 조정예산 591,730,000원 (중 272,730,000)
- 제3호의안 :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오동욱 위원을 추가하기로 하고, 시도회장 1인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5인
- 제4호의안 :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 사업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선정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정부표창 수상 후보자 명단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국가건축정책	(주)영남유리산업	김영석		
위원장상(2개)	서원 건축사사무소	강성현		
7575471711	영진철강(주)	김영춘		
국토교통부장관상 (3개)	한진테크(주)	유학연		
(0/11)	(주)하나기공	신현승		
=1 >4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경희		
환경부장관상 (3개)	(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0/11)	(주)이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이복흠		

#### ▲기타사항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조직위원회 구성시 사전에 이사회의 협의 를 거쳐 위원이 구성되도록 요청함.
- 자기계발 인정과 관련하여 오늘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위 원회에서 논의키로 함
- ▷자기계발인정기준 확대(홍보동영상 제작, 동호회 활동 등) ▷기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까지 확대

##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방향의 건
- 위원회는 전임회장과 전임감사의 문제가 건축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권고 하고, 이를 위해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발송키로 함,
- 또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방법 등의 개선, 관련규정(감사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등) 개정, 정관 개정 등의 순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 2인이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작성 · 검토한 후 차기 회 의 시 논의키로 함.
- 협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나 회원전용게시판에 게재되는 글 중에서 비판적인 내용을 떠나 욕설이나 비방, 인신공격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과도한 표현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윤리규정 검토 시 같이 논의하기로 함.

#### ■ 제5회 사업위원회

제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3 개최준비 점검의 건
  - 전시회 참가업체,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 신청서 접수현황 보고
  - ▷ 참가업체 유치방안, 한국건축산업대전 대상 후보자 추천, 부대행사 협의사항 검토하고, 초대장 등 각종 장치시안, 부스배치도는 9월말까지 초안을 작성키로 함.
  - ▷ 전시기간 내 세미나 개최내용을 건축사실무교육(자기계 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시도 건축사회에 공지키로 함
- 제2호 : 기타사항
  - 코엑스 공동개최 행사업무 진행사항을 점검토록 함.
- 녹색건축한마당을 협회 주관으로 개최, 국토교통부의 중요 한 행사로 대외적인 교류 확대 및 전시회의 성장에 큰 도움 이 될듯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 제4회 건축영화제 TF

제4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9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영화제 스폰서 확정의 건
  - 업체별 진행 과정에 있음.
- 제2호 : 건축영화제 포스터 확정의 건
  - 김동우 디자이너(디자인사냥꾼) 작업물 중 집행위원들의 회 의를 거쳐 최종 포스터 확정. '2013 건축의 날' 행사장에 홍 보동영상 및 패널과 함께 전시 계획.
- 제3호 : 트레일러 제작의 건
  - 포스터와 연계해 한정훈 디자이너(디자인사냥꾼)가 제작 준비 중, 상영작 확정(10월4일 예정)되는 대로 본격 작업 진행.
- 제4호 : 건축의 날 행사장 홍보 준비의 건
- 집행위원들의 협조 아래 진행하기로 함.
- 제5호 : 홍보계획에 관한 건
  - 9월말~10월까지 각 담당을 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제6호 : 홈페이지 작업에 관한 건
  - 디자인은 미비하지만 일정 및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디자인으로 완료하기로 함.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는 모바 일버전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 영어버전은 번역을 거 쳐 10월초까지 완료 예정.
- 제7호 : 홍보대행사 계약의 건
  - 영화제 홍보는 지난 4회 동안 홍보 대행을 맡아온 '아담스페이스(대표: 김 은)'와 과년금액으로 협의. 수일 내 계약서 작성 예정.

- 제8호 : 개막식 준비사항에 관한 건
- 400여명 선에서 10월초까지 건축인, 영화인, 문화예술인, 잠재 스폰서, 수도권지역 건축학과 및 영화학과 교수, 영화 제 위원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초청명단 작성 후 초청장 발송 계획. 박혜은 편집장에게 일간지 및 영화관련 매체 기자들 연락처 전달 받아 별도의 프레스 관리 필요.
- 제9호 : 상영작 선정의 건
  - 환경재단 김영우 프로그래머가 주제 '집'에 어울리는 20여 편의 영화 선정. 계약 진행 중인 몇몇 영화까지 계약 완료 후시나리오 및 소개글 등 한꺼번에 전달 예정(10월 4일까지).

#### ■ 제3회 주거복지위원회

제3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Sampling 주택개보수 사업에 관한 협의
- 괭이부리마을 Sampling 주택개보수 사업 진행상황
- Sampling 주택개보수 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향후 계획(안)
- 차기회의까지 조사자료 업무 분장
- 제2호 : 주거복지세미나 개최 계획(안)
- 일정: 2013년 11월 27일, 29일 예정
- 장소 : 협회 국제회의실
- 제3호 : 기타사항
- 차기회의 : 2013, 10, 2(수) 15시
- 장소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희망키움터 1층

## ■제2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회

제2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0 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최종 평가방법 결정
  - 심사위원들의 협의로 3작품을 우선 선정하고, 3작품 중 난 상토론을 통해 대상 작품을 선정하기로 함.
  - 각 작품에 대한 평가 점수는 작성하지 않기로 함.
- 수상작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작품은 탈락시키기로 함.
- 제2호 : 최종 심사결과
- 대상(1작품) : 풍기읍사무소
- 최우수상(2작품) : Y리조트, 청라 커넬큐브
- 우수상(9작품): 오디빌딩, YL빌딩, 동숭동 모 베터 블루스, 드래곤플라이DMC타워, 목3동 시장고객지원센터, 언덕 위 의 바람집, 다락방, 워당리주택, 루키1129
- -탈락(1작품) : 시소모 타워
- 제3호 : 기타사항
  -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이 신인 건축사들의 등용문이 될

-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작품집을 보면서 수상작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작품집을 제작할 때 대상 및 최우수상 작품과 우수상 작품의 지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음.

### ■ 제2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2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발주처 · 인허가 문제로 인한 소송 및 피해에 관한 건

건축사 명	내 용	결과
황정화	관광호텔 사업승인신청에서 법적문제는 없으나, 주변에 관광지가 없다는 이유로 입지가 맞지 않아 불승인통보를 받음. 소송 고려중	본인 포기 의사로 종결
송승용	전라남도 교육청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 부담인 지반조사비 부담요청, 설계 변경시 증액불가, 감리비의 용역비 전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	손근익 위원장 조사 후 차기 회의 논의
김세정	발주처에서 계획설계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용역물 납품을 이행하지 못함. 이후 발주처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보증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허민구, 도경환 위원 조사 후 차기 회의 논의

## ▲기타사항

- 이주권 위원의 회원 의견수렴 보고서 관련은 손근익 위원장에 게 위임.
- 피해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할 필 요성이 있음(차기 회의부터는 필요시 당사자를 미리 섭외하여 회의에 출석시키기로 함)

### ■ 제6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제6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1일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강사인력풀 현황보고 및 심사
  - 강사인력풀 구성의 당초 의도는 각 지역에 소속된 회원들 중 능력 있는 건축사들을 발굴하여 활용하자는 의도였으 나, 시도 간 인력풀 구성의 편차가 심하므로, 계속적으로 분야별 강사인력풀을 모집하기로 함.
- 아울러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건축구조역학, 설비, 전기분 야 등의 강사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상반기 실무교육 시행평가 검토
  - 상반기 실무교육 평가결과 드러난 미흡한 점 및 개선할

-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 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함.
- 또한 2014년도 교육과정에 태양광, passive 주택 등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 제3호 : 2014년도 실무교육 시행계획 수립
- 2014년도 실무교육 실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각 시도 건축사회에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안)을 전달하되 전문교육 운영시간은 시도건축사회의 역량을 고려하여 편성(최대 8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014 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각 시도건축사회에 충분한 시 간을 줌과 아울러 교육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 록 준비하기로 함.
- 또한 시도건축사회의 사이버강좌 제작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4호 : 산업대전 연계교육 및 사이버강좌 추가 제작
- 산업대전 연계교육과 관련하여 철강협회에서 시행하는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과목에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강구조설계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기로 함.
- 유지관리 · 점검교육 과정(책임점검자, 점검원)도 10월중 사이버강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 제3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3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현장실측과제 평가에 관한 건
- 2012년도 교육에서는 실측과제 평가를 상·중·하로만 평가하였으나 2013년도 교육 실측과제물은 추후 수상자 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디테일, 결구, 표기법 등 보완사항에 대하여 평가·기재토록하고 상·중·하로 분류 후 상급 분류자에 대하여 재평가하기로 함.
- 제2호 :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 가구의 치수결정, 가구의 용도, 창호 및 가구와 공간과의 관계 등은 한옥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취지에 맞도록 발표자를 섭외하려 하였음.
- 건축사신문, 관련 학회에도 홍보하기로 함.
- 제3호 : 국내워크숍 실시에 관한 건
- 본래 오동재 한옥호텔에 숙박하며 한옥 시공성 문제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려 했으나 숙박문제 등으로 인하여 장소를 강릉 및 고성으로 변경, '한옥보수설계' 중심의 주제로 진행하기로 함.
- -1일차는 강릉 소재 제재소 견학 및 고성 어명기 가옥, 왕곡 마을 등 한옥을 답사하고 근대한옥인 김윤기 가옥을 방문하 기로 하며, 2일차는 건봉사를 방문하여 요사채 중심으로 답 사하기로 함.

- 위크숍 진행시 강원대학교 박경립 교수와 경동대학교 최영 철 교수가 특강하기로 함.
- 제4호 : 대학생워크숍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11월 23일, 30일 실시계획이었던 대학생워크숍은 실습장소 대여의 문제로 11월 23일, 24일 양일간으로 변경하여 개최 하기로 함.
  - 1일차 일정은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측하는 요령을 간단히 강의하도록 하고 외부 실측장소에서 실측 작업을 마 치고, 2일차는 도면작성 및 리뷰 등으로 진행하기로 함.
  - 실측 작업 장소대기 강사 인원을 작년 수료자 중 섭외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5호 : 해외답사 추진에 관한 건
  - 일본답사 협조 요청 건과 관련하여 9월 초 일본건축사회연 합회, 고베 다케나카 대공도구관, 오사카대공숙, 나라 오가 와미쯔오 대공사무실로 서신을 보낸 결과, 오카사대공숙에 서는 대규모개발지 내 목조건축현장 답사가 가능하다는 회 신을 받았으며, 고베 다케나카 대공도구관 및 나라 오가와 미쯔오 대공사무실 방문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 그 외 사찰, 박물관, 전통주거건축 보수·수리현장 등을 섭 외하여 추진하기로 함.

#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작 선정 대상에 최재원 건축사의 '풍기읍사무소'



대상\_풍기읍사무소\_최재원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신 인건축사 대상'에 최재원 건축사(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의 '풍기읍사무소'가 선정됐다.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지 만 10년 이 지나지 않고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건축사로 참가를 제한한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9 월 30일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최재원 건축사의 '풍기읍사무소'는 건축주인 영주 시와 건축사 및 지역주민들의 건축적 요구사항 및 의견 조율을 건축 커미셔너를 통하여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에 적합한 건축공간을 구축한 점이 공공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타 공공건축물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읍사무소 공공업무공간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점, 다목적 및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내·외 시설 및 도로 축을 건축물에 도입한 컨셉 등은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생기 있는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잘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홍만식 건축사의 '청라 커낼큐브'와 김대훈 건축사의 'Y RESORT JEJU'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대상에 심사를 맡은 한 심사위원은 "올해의 응모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신인건축사로서 규모는 작으나 이에 대한 한 계를 극복하려는 열정을 볼 수 있었고, 이를 창의적인 역량으로 발전시켜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건축사·건축주·시공자가 상호 소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우수상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들은 작품집으로 제작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수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실질적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작은 본지 12월호(퉁권 536호)에 특집으로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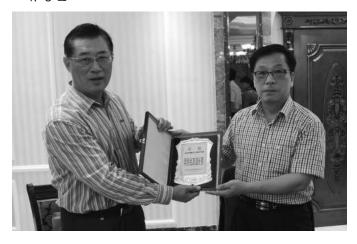


최우수상\_청라 커낼큐브\_홍만식



최우수상\_Y RESORT JEJU\_김대훈

## 경북건축사회, 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 감찰설계협회 교류방문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는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3 박4일 일정으로 연병 조선족자치주정부 감찰설계협회를 방문해 상호협력 발전 방안에 협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송용 회장을 비롯해 임일중 부회장, 최요명 이사, 방재원 포항지역건축사회장, 고국환 문경지역건축사회장, 경북도청 김용일 사무관, 권상기 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김경태 건축사, 김대학 건축사), 이재철 사무국장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양국 협회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방안, 2014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및 초청 규모, 2014 경북건축문화제 출현작품 등을 제안했고, 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 건설국 이호국장과 감찰설계협회 장세준 회장 등과 최대한 지원 및 협조하기로협의했다. 한편 경북건축사회는 2009년 5월 18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감찰설계협회와 상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해 매년 상호 방문하고 있다.

## 강릉지역건축사회, 회원작품전과 승효상 건축사 초청강연 개최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회장 김보규)는 지난 9월 24일 부터 26일까지 강릉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회원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회원들의 소중한 작품을 모아 시작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강릉시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품전시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찬흥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전시회 오프닝에 앞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회원, 시민, 공무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사의 강연이 있었다. 승효상 건축사는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고,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빈자(貧者)의 미학'을 실천하는 건축사로 강연에 참석한 모든 이날 사람들에게 건축이 곧 문화와 역사임을 각인시켰다.

## 창원시지역건축사회, '이고르 마르코' 초청강연 개최



창원시지역건축사회(회장 김태호)는 지난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영국 건축사 이고르 마르코 (Igor Marko · 영국 왕립 건축사)를 초청해 "건축, 장소만들기로 도시를 만들다(The Role of Placemaking in Sustainable Urban Developmet)."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초청강연회는 조영파 창원 부시장과 건축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문성대학 교수 및 학생들과 창원시민 등 총 320여명이 참석하여 건축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와 도시 건축 · 설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고르 마르코는 "'장소만들기(Placemaking)'라는 디자인 방법이 사람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하고, 지역적으로 요구하는 환경과 세계적인 환경이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과 녹색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와 인간들의 관계를통해 장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강연을 진행했다.

김태호 회장은 "창원시와 창원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와 함께 매년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사를 초청하여 개최되는 국제초청 강연회가 창원시민들의 큰 관심으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사들의 친환경 건축·설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축과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전했다.

## 건축계소식

## 2013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와 충남 공공디자인협회가 주최하고 2013 충남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013 충남건축·공 공디자인문화제'가 지난 10월 2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공 주시 고마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개막행사에는 이준원 공주시장, 이 용만 공주교육지원청장, 조형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조충기 서 울건축사회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대학생들이 참여한 '제6회 충남건축문화대전'은 100여 작품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Kindergarten In The Nature - 자연으로 돌아가 놀이를 배우다'의 작품을 출품한 선문대학교 김규태, 강소희가 대상을, 총 50여명의 학생들이 수상했다. '제4회 충청남도건축상'은 15여 작품이 접수되어 건축사사무소 도움건축의 한진수 건축사의 '계룡면사무소 신축공사'가 대상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선정됐다.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제6회 어린이집 그리기 및 만들기'는 231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그리기부문은 천안서당초등학교 박다현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과 만들기부문은 천안월봉초등학교의 심민서 학생의 '로켓트 발사'이 대상을, 총 31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2013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를 통해서 도민, 학생, 건축인 등의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으로 건축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건축사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계기가 되었다.

### (사)빌딩스마트협회. buildSMART Conference 2013 개최

(사)빌딩스마트협회는 오는 2013년 11월 26일 건설회관 2, 3층에서 buildSMART Conference 201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빌딩스마트협회, (사)한국건설IT융합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며, buildSMART Conference 2013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최근 국내외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BIM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GIS와의 연동, 3D관련 장비와의연동 등 BIM 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해외에서의 BIM 적용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 측면에서의 BIM 추진에 대한 환경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BIM을 보다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한다.

기타 문의는 빌딩스마트협회 사무국 오민경 사무원(070-7012-0409, mkoh@buildingsmart.or.kr)에게 하면 된다.

## 김용찬 건축사 '강서구민상' 수상



김용찬 건축사(동선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17회 강서구민상'을 수상했다. 현재 대한 건축사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 5년간 강서구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찬 건축사는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선정돼 10월 12일 개최되는 제14회 의성 허준축제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 받았다. '강서구민상'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모범

구민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봉사, 환경보호, 문화체육발전, 미풍양속 등 5개다.

## 신간안내

## 건설산업에서 동시공학

최도승 저 / 191쪽 / 구미서관



동시공학은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프로젝트의 기획,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파괴로 이어지는 건설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별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공기단축은 물론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설계 및 시공을 수

행함에 있어 우리가 평소 느끼고 있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계획,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게될 것이다. 특히 부록에서는 설문지와 설문지 설계분석표, 시뮬레이션 결과자료가 상세하게 기록돼 더욱 도움이 되고 있다.

##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

김석환 저 / 256쪽 / 기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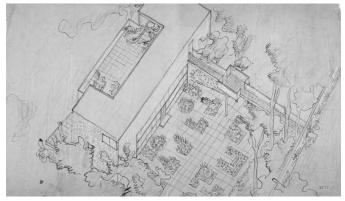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한국전통건축 가운데 전통적 가치와 맵시가 가장 빼어나다고 생각한 9곳을 꼽아 쓴 것으로, 건축사로서의 안목과 백두대간 등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종주한 지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인문과 역사를 아우른 시각에서 그 각각의 핵심적 의미들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이 책에 담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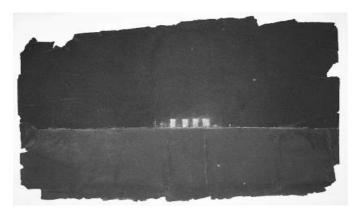
과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자가 직접 쓰고 제작한 것으로 일관된 시각이 담겨 있으며, 그러한 다각적인 표현 수단을 통해 독자에게 오감으로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책의 특징은 근래의 저술 흐름이 집짓기 등 세부 주제로 흘러가는 추세에서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한국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다루며 사색이 수반된 문체로 생생한 호흡이 담긴 글을 쓴 데 있다.

#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르 꼬르뷔지에의 첫번째 전시

The First Exhibition of Le Corbusier at Museum of Modern Art



Music Pavilion for Villa Church, 1927–1938, Courtesy Museum of Modern Art



Plan for Buenos Aires, 1929.

민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최근 Le Corbusier의 첫 회고전이 MoMA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의 큐레이터 Jean Louis Cohen과 Barry Bergdoll가 선택한 이전시 타이틀 An Atlas of Modern Landscape는 관객들에게 표제로 쓰인 landscape에 따라 전시 품들을 보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 전시는 훌륭하고, 그것은 매우교훈적인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landscape와 그의 주요 건축 작품들을 회고적 통시 관점에서 동시에 보여주기 위하여 지어졌거나 혹은 지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드로잉이나 회화들 등모두를 제공하여 설명하려 하였으나 제한된 공간인 전시장 안에서 모두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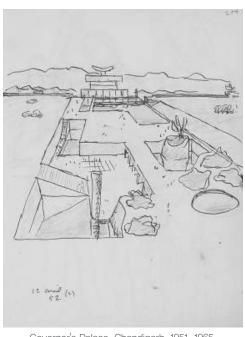
하지만 전시 안내책자는 두 관점을 그의 작품의 훌륭함과 건축계에 끼친 영향력을 적절히 잘 설명하며 전시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

도면 원본들, 수채화, 페인팅, 모형, 그리고 영화 등을 활용하여 Le Corbusier가 건축사이자 화가로써 고향인 스위스에서 설계한 초기작품부터 그가 자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Le Corbusier를 20세기의 근대건축과 도시설계의 모든 실수에 대한 주범 혹은 희생양이라며 비난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관람객들은 친숙한 작품들의 주로 덜 알려진 이미지들을 보며 복합적인 표현수단을 통한 그의 사고의 진화를 느낄 수 있다. 전시는 첫 스승인 Chales L'Eplattenier의 페인팅과 Le Corbusier 본인의 작품인 낭만적인 Jura School 조경으로 시작한다.

전시는 계속해서 파리의 큰덩어리를 지우고, 추상적이고 이상 적인 도시형 오피스타워, 그리고 공원과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중. 저층 주 거단지를 가 진 중세 도시 구조로 대체 하는 논쟁적 인제안들을 보여 준다. 조경으로 시 작하는 작품 은 1929년 그 가 남아메리 카 해안 비행 기 여행의 결 과물로 그려 낸 지형과 도 시들의 스케 치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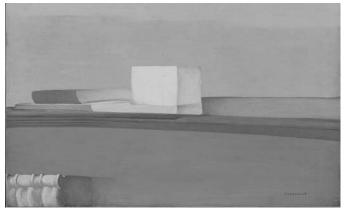


Governor's Palace, Chandigarh, 1951-1965.

1929년 10월 22일, Le Corbusier는 'Aeroposta Argentina'의 첫비행을 하였다. Jean Marmoz와 Antonie de Saint-Exupery 가 조종한 비행기는 Buenos Aires에서 출발하여 Asuncion del Paraguay까지 날아갔다. 그것은 이전의 파리도시 계획들로 물의를 일으켰던 42세의 건축사에겐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비록그 지역 문맥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평한데 카르트적 도시계획 Ville Contemporain de Trois Millions D'habitants, Ville Radieuse, Cite Linear Industrial는 산과



Plan for Algiers and Barcelona, 1935.



The Fireplace, 1918,

강, 바다가 주축으로 구축되어 사이트의 공중에서 바라본 지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에 녹아 들어 있었다. 그가 이 비행기 여행에서 만들어낸 Montevideo, Buenos Aires, Sao Paulo 그리고 Rio 지역에 제안한 놀라운 도시계획들은 Buenos Aires의 Plata 강의 독특한 수경, Montevideo의 툭 튀어나온 반도의용기, Sao Paolo의 많은 언덕들과 두개의 강, 그리고 연속되는만과 바위로 만들어진 비경을 지닌 Rio de Janeiro의 풍광을 반영하고 있다.

to the crisis!는 위의 깨달음이 그의 세계관이 되었음이 자명해졌음을 보여준다. 1929년 가을은 그의 건축인생에서 있어 전환점이 되었는데, 초기 각기둥으로 된 집과 논쟁적인 도시제안들에서 벗어나 더욱 현실적 초점으로 하지만 조경이 아니라 대지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런 지형적인 관점은 Le Corbusier에게는 특별히 인식되지 않았던 식생이 아니라 이도시들의 극적인 지형의 상태에 관련이 있었다. 동승자 Josephine

CHAND LC

Capitol Complex, Chandigarh, 1951-1965.

Baker와 함께한 Rio, Buenos Aires까지의 그의 항해는 '건축의 미래'를 위한 탐험이었으며, 그 결과물은 설계의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연들을 가졌고, 그 기록들을 한권의 책으로써 모으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기 1930년에 파리에서 출판한〈Precisions on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는 그의 이론과 건축, 도시계획 방식에 대한 그의 특정한 관점을 다룬 그의 최고의 책이었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독톡한 기후, 식생, 지형은 Le Corbusier 의 복합적인 개성의 감각적인 측면을 이끌어내었다. Rio, Montevideo, 그리고 San paolo를 위한 건축으로써 조경으로 통합된 도시 하부구조의 그의 대담한 제안들은 감각적이고 기념적이었다. 이 제안된 'earthscrapers' 중 아무것도 미국에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 1936년 브라질 여행에서 Lucio Costa에게 자문위원으로써 Rio 대학과 교육부 본부를 위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으며, 이후 프로젝트인 earthscraper 도시건축, the Plan Obus for Algiers 역시도 실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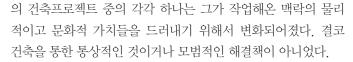
Soviet Union, Latin America, Istanbul 혹은 Algier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찾는 끈질긴 여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맥락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유명한 건축물을 제안하는 동시대의 유명 건축사들의 모델로 여겨질 수는 없었다. 그의 스케치북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Le Corbusier는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많은 여행 중에 보았던 일반주택 양식구조부터 농업과 천체현상까지 거의 모든 것에 주목하였다. 그



Parthenon, Athens,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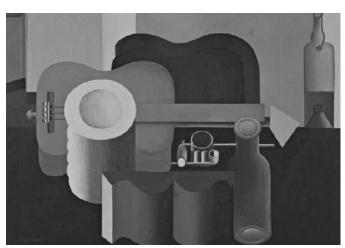


Urban Plan for Rio de Janeiro,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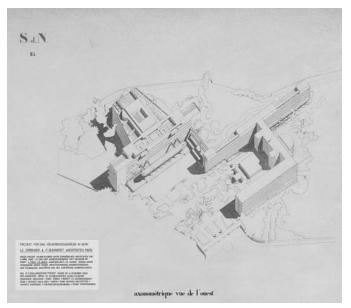


Le Corbusier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고, 이 과정은 그의 건축을 발전시켰으나, 그 그림의 대부분은 그가 완공해 낸 건축작품들의 훌륭함에는 미치진 못했다. 그러나 그의 최고의 건물은 회화적이고 조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오리지널 모델들과 드로잉에서 만큼이나 그림들속에서 색과 재료에 대한 감수성이나타나고 있다. Amédée Ozenfant와의 협업과 '순수주의'의 지지 이전에, 그는 그림의 주제로써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전시에서 가장 놀라운 유화는 The Fireplace, 1918이다. 이 그림에서, 색이 층으로 분리된 배경에서 투시도로 하얀 입방체 볼륨이 나타난다. 순수주의 화가 혹은 건축사로서도, Charles de Beistegui apartment in Paris(1929—1931)로 절정에 도달한 회화작품에서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Still Life, 1920.



Palace of the League of Nations, 1921.

만들기에 이상적인 나라들이어서 Le Corbusier는 매우 희망적이었던 반면, 그 대륙에는 단지 두 개의 작품만을 실현하였다. 아르헨티나 La Plata의 지역 건축사인 AmancioWilliams와 협업한 Villa Curuchet와 그의 동료이자 이전 고용인인 Jose Luis Sert와 협업한 Carpenter Center였다. Jose Luis Sert는 Massachusetts, Cambridge의 후원자였다.

가장 눈에 띄는 몇 작품과 전시에서 좀처럼 보이지않던 작품들은 긴 족자에 특정 주제를 설명하는 그의 강연이 쓰여있다. 오리지널 모델 옆의 소비에트궁의 콜롬비아 대학의 족자나 1935년 시카고에서의 강연 기간동안 만든 수직 정원도시를 포함한 알제와 바르셀로나의 기다란 스케치같은 그림들은 그의 아이디어들에 대한 감정적이고 자발적인 강렬함과 그만의 세계관으로 관람객을 설득시키기 위한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61년 4월 28일 콜롬비아 대학의 관객들에게 '나는 말하는 것보다 그림을 선호한다. 그림은 거짓말 할 곳이 적다.' 아이디어들에 대한여기 기호들과 글자들은 무료이며, 어떻게 그 스스로 자신의 건축에서 살게하였는지에 대해 부차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Le Corbusier는 대학교에 다닌적이 없으며, 건축을 가르쳐 본적도 없다. 이 족자들은 대중적인 건축사로써 Le Corbusier에 대해 교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들이다.

정확하게, 그가 쓴 브라질에 관한 이야기는 '2개월 반 동안의 제약과 억압 이후에 축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론지으며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 초원 지대인 모스코바, 팸퍼,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림지대 그리고 리오로를 천천히 귀기울이며 돌아다닌 일은 저에게 있어서 건축의 토지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를 보면서 주의해야 만한다.'이 전시는 Le Corbusier와 '근대건축'에서 그의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당신 의 관점을 바꿀것이다 ' 尚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9월말

건축	19	PI		개 인 /	사 무 :	<u>۸</u>																
- · \		PI I							법 인 사 무 소							합	계					
11=1			2	인	3인	!이상	소	.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인	이상	소	계	1 1	711
사회 ↓ ∠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	6,106	6,106	86	172	7	21	6,199	6,299	1,757	1,757	235	470	60	180	28	112	13	89	2,093	2,608	8,292	8,907
서울 9	960	960	22	44	0	0	982	1,004	885	885	122	244	42	126	14	56	9	55	1,072	1,366	2,054	2,370
부산 5	527	527	9	18	2	6	538	551	119	119	29	58	1	3	2	8	1	7	152	195	690	746
대구 5	520	520	19	38	4	12	543	570	71	71	14	28	4	12	2	8	0	0	91	119	634	689
인천 2	287	287	3	6	0	0	290	293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62	374
광주 2	220	220	1	2	0	0	221	222	42	42	6	12	2	6	3	12	0	0	53	72	274	294
대전 2	268	268	5	10	0	0	273	278	33	33	7	14	4	12	1	4	1	12	46	75	319	353
울산 1	199	199	4	8	0	0	203	207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27	234
경기 8	860	860	2	4	0	0	862	864	252	252	16	32	3	9	2	8	0	0	273	301	1,135	1,165
강원 2	201	201	2	4	0	0	203	205	24	24	2	4	0	0	1	4	0	0	27	32	230	237
충북 2	227	227	2	4	0	0	229	231	41	41	3	6	2	6	2	8	1	9	49	70	278	301
충남 3	300	300	1	2	0	0	301	302	59	59	7	14	0	0	1	4	0	0	67	77	368	379
전북 2	268	268	5	10	0	0	273	278	28	28	5	10	1	3	0	0	0	0	34	41	307	319
전남 2	215	215	0	0	0	0	215	215	25	25	2	4	0	0	0	0	1	6	28	35	243	250
경북 4	419	419	4	8	1	3	424	430	39	39	5	10	0	0	0	0	0	0	44	49	468	479
경남 4	495	495	6	12	0	0	501	507	37	37	5	10	0	0	0	0	0	0	42	47	543	554
제주 1	140	140	1	2	0	0	141	142	17	17	2	4	0	0	0	0	0	0	19	21	160	163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건축사회	건축사	비 율
합 계	8,907	100%
서 울	2,370	26.6%
부 산	746	8.4%
대 구	689	7.7%
인 천	374	4.2%
광 주	294	3.3%
대 전	353	4.0%
울 산	234	2,6%
경 기	1,165	13.1%
강 원	237	2.7%
충 북	301	3.4%
충 남	379	4.3%
전 북	319	3.6%
전 남	250	2.8%
경 북	479	5.4%
경 남	554	6.2%
제 주	163	1,8%

#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10월중순

지 11,792 2,075  서 울 3,792 1,428  부 산 744 72  대 구 682 42 인 천 373 6 광 주 301 40 대 전 346 35 울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201012 10 20 12
서 울     3,792     1,428       부 산     744     72       대 구     682     42       인 천     373     6       광 주     301     40       대 전     346     35       울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부 산 744 72 대 구 682 42 인 천 373 6 공 주 301 40 대 전 346 35 울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계	11,792	2,075
대 구 682 42 인 천 373 6 공 주 301 40 대 전 346 35 을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서 울	3,792	1,428
인 천 373 6  광 주 301 40  대 전 346 35  울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부 산	744	72
광 주 301 40 대 전 346 35 울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대 구	682	42
대 전 346 35 울 산 233 23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인 천	373	6
울 산 233 23 23 23 23 23 23 24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광 주	301	40
경 기 1,427 82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대 전	346	35
강 원 256 13 충 북 319 58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울 산	233	23
충 북 319 58 중 남 377 49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경 기	1,427	82
충 남 377 49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강 원	256	13
전 북 336 21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충 북	319	58
전 남 279 52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충 남	377	49
경 북 486 23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전 북	336	21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전 남	279	52
제 주 166 24 기 타 1,089 77	경 북	486	23
기 타 1,089 77	경 남	586	30
	제 주	166	24
비 고 회원: 8,706 / 비회원: 3,086 대학: 1,876 / 대학원: 199	기 타	1,089	77
	비고	회원 : 8,706 / 비회원 : 3,086	대학 : 1,876 / 대학원 : 199

#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고
회원수	6,299	2,608	8,907	
비율	70,72%	29,28%	100%	
사무소수	6,199	2,093	8,292	
비율	74.76%	25,24%	100%	